

농암(龔巖) 이현보(李賢輔)의 『애일당구경첩(愛日堂具慶帖)』 권하에 관한 연구*

A Study of Nongam Yi Hyeonbo's *Aeildanggyungchup* vol. 2

강 순 애 (Kang, Soon-Ae)**

◁ 목 차 ▷

<p>1. 서 론</p> <p>2. 농암(龔巖) 이현보(李賢輔)의 생애</p> <p>3. 『애일당구경첩(愛日堂具慶帖)』 권하의 구성과 내용</p> <p>3.1 화산양로연시(花山養老宴詩)</p>	<p>3.2 애일당시(愛日堂詩)</p> <p>4. 『애일당구경첩(愛日堂具慶帖)』 권하의 가치</p> <p>5. 결 론</p> <p><참고문헌></p>
---	---

< 초 록 >

이 글은 농암(龔巖) 이현보(李賢輔)의 『애일당구경첩(愛日堂具慶帖)』 권하에 관한 서지적 연구를 진행하기 위해, 농암 이현보의 생애, 『애일당구경첩』 권하의 구성과 내용, 『애일당구경첩』 권하의 가치 순으로 살펴보았다.

『애일당구경첩』 권하는 중종 14년(1519)부터 중종 20년(1525) 사이의 글을 모아 성책된 필사본이다. 이현보의 ‘화산양로연시(花山養老宴詩)’와 ‘애일당시(愛日堂詩)’를 앞에 두고 당시 경향의 명사들이 운을 맞추어 화답한 시들이 인물별로 실려 있다.

『애일당구경첩』 권하는 보물 1202호이다. 이 책을 통해 조선시대 목민관의 양로잔치와 효의 풍속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 수 있다.

『애일당구경첩』 권하에는 성종-중종 시기 사림파로 활동했던 인물들이 집중되어 있어 농암이 교류했던 중요 인물들과 그들의 문학성을 살펴 볼 수 있다. 농암의 ‘화산양로연시’에 차운한 사람이 37명, ‘애일당시’에 차운한 사람이 35명인데, 두 시(詩)에 중복된 사람을 제외하고 실제로는 38명이 시 106편을 차운하였다. 이들 중 『농암선생문집』에 채 수록된 시편은 16명(중첩 제외)의 41시편인데 이들이 이현보와 가장 가까운 사람들로 여겨진다. ‘화산양로연시’와 ‘애일당시’에 차운한 사람의 개별문집에만 수록된 경우는 2명(중첩 제외)의 시 6편에 불과하다. 『농암선생문집』과 개별 문집에 수록되지 않고, 『애일당구경첩』에만 실려 있는 이들은 23명(중첩 제외)의 시 59편인데, 이들 그룹과 화답시는 새롭게 조명되어야 한다.

『애일당구경첩』 권하는 필사본 원본으로 본문은 모두 82쪽인데, 그중 31쪽이 결장이다. 이 필사본에 실린 내용이 후대에 편집된 『농암선생문집』이나 일부 화답한 사람의 개인문집에 실린 경우를 비교해 보면, 각 텍스트 간의 일부 차이가 있어 문헌의 상관관계를 밝히는 데 있어서

* 본 연구는 2012년도 한성대학교 교내연구장려금의 지원을 받아 이루어졌음.

본 연구는 서지학회 추계학술발표회(2012.11.2)에서 발표한 내용을 수정·보완한 것임.

** 한성대학교 인문대학 지식정보학부 교수(h4085@hansung.ac.kr)

접수일: 2012년 12월 1일 최종심사일: 2012년 12월 10일 심사완료일: 2012년 12월 17일

도 매우 중요한 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 또한 「에일당구경첩」에만 실린 자료들은 후대의 발굴자료와의 관련성을 밝히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하다.

이 연구의 결과는 서지학, 국문학사 및 시 문헌의 연구에 가장 기본적인 연구 성과로 활용될 것이다.

要語: 농암 이현보, 「에일당구경첩」, 「에일당구경첩」 권하, 화산양로연시, 에일당시

<ABSTRACT>

This paper engages in a bibliographical study of the *Aeildanggugyungchup* vol. 2 written by Nongam Yi Hyeonbo by exploring in order the life of Nongam Yi Hyeonbo, the composition and the content of the *Aeildanggugyungchup*, and the value of the *Aeildanggugyungchup*.

Aeildanggugyungchup vol. 2 is a manuscript created by collecting writings between the 14th year to the 20th year of Jungjong's reign (1519-1525). The book contains poems in rhyme that prominent figures of the time in Seoul and from Yi's hometown wrote to each other in response to Yi Hyeonbo's poems "Hwasan-Yangroyeon-sih" and "Aeildang-sih", with the poems appearing by writer.

The *Aeildanggugyungchup* vol. 2 is classified as Treasure No. 1202. The books enable us to learn in detail about the feasts for the elderly held by the governor and the customs of filial piety in the Joseon Dynasty.

The writings in *Aeildanggugyungchup* vol. 2 are concentrated on persons who were in the Sarim group in the time of Seongjong-Jungjong, making if possible to study important figures who had exchanges with Nongam as well as observe their literary skills. 37 people wrote poems by matching rhymes with Nongam's "Hwasan-Yangroyeon-sih" and 35 people wrote rhyme-matching poems to "Aeildang-sih." Excepting the writers who overlap in both poems, 38 people wrote 106 poems. Among these numbers, 41 poems of 16 people, aside from those who overlapped, are included again in *Nongam-Seonsaeng-Munjip*. Those people are thought to have been closest to Yi Hyeonbo. Only 6 poems by 2 people (excepting overlaps) who wrote rhyme-matching poems to "Hwasan-Yangroyeon-sih" and "Aeildang-sih" were included in other individual anthologies. 59 poems by 23 people (overlaps excepted) were included in "Aeildang-sih" but not in the *Nongam-Seonsaeng-Munjip* or in other individual anthologies. This group and their response poems should be reilluminated.

Aeildanggugyungchup vol. 2 is an original manuscript with 82 pages of text, 31 pages of which are missing. When comparing the content of the manuscript to *Nongam-Seonsaeng-Munjip* which was edited later or to the anthologies of a few correspondents, we notice certain differences between texts which can be used as important material in finding out the correlation between documents. Moreover, the material found only in *Aeildanggugyungchup* vol. 2 is extremely important in finding the relation with future material.

The results of this study will be used in the most fundamental studies of Bibliography, Korean Literature Studies and Poems Sciences.

Key words: *Nongam Yi Hyeonbo*, *Aeildanggugyungchup*, the *Aeildanggugyungchup* Volumes, Hwasan-Yangroyeon-sih, Aeildang-sih

1. 서론

보물 1202호 「애일당구경첩(愛日堂具慶帖)」은 농암(龔巖) 이현보(李賢輔)의 종손가에 소장된 시화첩으로 상, 하 2책으로 구성되어 있다. 상책은 ‘한강음전도(漢江飲餞圖)’, ‘화산양로연도(花山養老燕圖)’, ‘분천헌연도(汾川獻燕圖)’ 등 3편의 그림이 있고, 그림 아래에 당시 명신들이 주인공 이현보를 전송하면서 쓴 시들이 있다. 하책은 이현보가 중종 14년(1519)에 안동부사로 있으면서 중양절(重陽節: 음력 9월 9일)에 이현보가 부모와 관내 노인들을 초청하여 잔치를 베풀면서 자신이 지은 ‘화산양로연시’와 이에 화답한 37명의 차운시가 들어 있고, 이어 중종 7년(1512)에 고향집 옆 분천(汾川) 기슭 농암 바위 위에 애일당(愛日堂)을 건립하고 부모에 대한 효도를 위해 명절마다 이곳에서 때때옷을 입고 부모를 즐겁게 해드렸는데, 이와 관련하여 농암이 지은 ‘애일당시’와 이에 운을 맞추어 화답한 35명의 시들이 들어 있다. 이 책의 편집은 화답에 바로 참여한 사람들과 농암이 별도로 부탁하여 후에 받은 사람들의 시를 포함하여 중종 14년(1519)부터 중종 20년(1525) 사이에 이루어진 것으로 여겨진다.

위의 두 책 중 하책은 한국국학진흥원이 2003년 1월에 출간한 「귀증본자료집」에 들어 있어 그 세부적인 내용의 파악이 가능하다. 이 책에 실린 자료들은 저자인 이현보는 물론이고 화답한 사람들의 자필로 쓰인 시들을 모아 편집된 것을 저본으로 영인된 것이어서 바탕 책인 필사본을 연구하는데 매우 중요하다. 이 책에 실린 38명(중첩 제외)의 시 106편 중 18명(중첩 제외)의 시 47편은 「농암선생문집」 및 차운한 사람의 개별문집에 재 수록되어 이현보와 교류한 중요 인물들과 그들의 작품성을 살펴볼 수 있다. 그중 필사본과 후대에 편집된 문집 사이에 내용의 차이가 있는 것은 텍스트간의 비교를 통해 내용의 정확성 및 관련성을 찾는 데 매우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다. 「애일당구경첩」에만 실려 있는 23명(중첩 제외)의 시 59편들은 후대에 발굴 자료와의 관련성을 밝히는데 있어서 매우 중요하다.

하지만 이 시편들에 대한 연구는 서지학, 국문학사, 시 문헌 분야에서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따라서 이 연구는 농암(龔巖) 이현보(李賢輔)의 생애, 「애일당구

경첩」권하의 구성과 내용, 「에일당구경첩」권하의 가치 순으로 진행하고자 한다.

이 연구의 결과는 서지학, 국문학사 및 시 문헌의 연구에 가장 기본적인 연구 성과로 활용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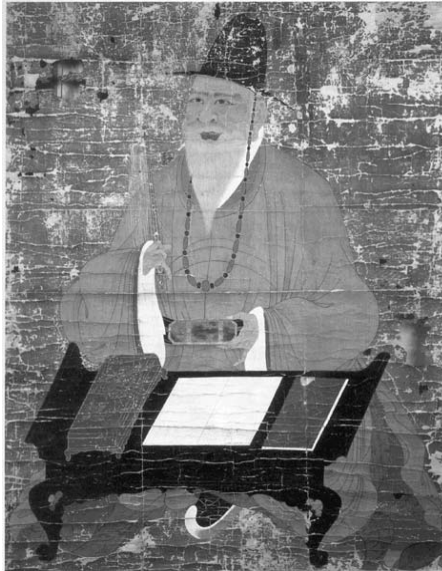
2. 농암(龔巖) 이현보(李賢輔)의 생애

농암(龔巖) 이현보(李賢輔: 세조 13년(1467)-명종 10년(1555))(<그림 1> 참조)는 본관이 영천(永川)이고 자는 비중(裴仲)이며, 호는 농암(龔巖) 또는 설빈옹(雪鬢翁)이다. 세조 13년(1467)에 예안(禮安) 분천리(汾川里)에서 태어났다. 연산군 4년(1498)에 문과에 급제하여 권지교서관부정자(權知校書館副正字)에 보임된 뒤 연산군 시대에 영흥부(永興府) 훈도(訓導), 예문관(藝文館) 검열(檢閱)·대교(待敎)·봉교(奉敎), 성균관(成均館) 전적(典籍), 세자시강원(世子侍講院), 사서(司書), 사간원(司諫院) 정언(正言) 등 경관직의 하위직을 역임하였다.

중종조는 반정(反正)(중종 1, 1506) 직후 8년까지 박원종(朴元宗) 등의 반정세력에 의해 정국이 주도되었다. 중종 8년(1513) 이후 기묘사화가 일어난 중종 14년(1519)까지의 기간을 제외하면 정광필(鄭光弼), 안당(安塘) 등에 의해 운영되면서 조광조(趙光祖), 김안국(金安國), 권벌(權撥) 등의 사람세력에 의해 개혁정치가 이루어졌다. 이 시기에 이현보는 안동의 안기역(安奇驛) 배소에서 방환되어 호조좌랑(戶曹佐郎), 사헌부(司憲府) 지평(持平), 예조좌랑(禮曹佐郎), 형조좌랑(刑曹佐郎), 형조정랑(刑曹正郎), 영천군수(永川郡守), 군기시(軍器寺) 첨정(僉正), 밀양부사(密陽府使), 선공감(繕工監) 부정(副正), 충주목사(忠州牧使), 안동부사(安東府使) 등의 관직을 역임하였다. 기묘사화 이후는 남곤(南袞), 심정(沈貞), 홍경주(洪景舟)의 훈구파가 축출되고 김안로(金安老)에 의해 주도되다가 다시 사람파들이 정치를 주도해 나갔다. 이 시기에 이현보는 수년간 안동부사직에서 벗어나 경관직에 복귀하여 예빈사(禮賓寺) 부정(副正), 사복시(司僕寺) 정(正), 사헌부(司憲府) 집의(執義), 군자감(軍資監) 부정(副正), 성주목사(星州

농암(龔巖) 이현보(李賢輔)의 「애일당구경첩(愛日堂具慶帖)」 권하에 관한 연구

牧使), 성균관(成均館) 사성(司成), 군기시(軍器寺) 정(正), 세자시강원(世子侍講院) 보덕(輔德), 장악원(掌樂院) 정(正), 병조참지(兵曹參知), 승정원(承政院) 동부승지(同副承旨), 용양위(龍揚衛) 대호군(大護軍), 의흥위(義興衛) 상호군(上護軍), 대구부사(大邱府使), 평해군수(平海郡守), 영천군수(榮川郡守), 홍문관(弘文館) 부제학(副提學), 우부승지(右副承旨), 경주부윤(慶州府尹), 예조참의(禮曹參議), 경상도관찰사(慶尙道觀察使), 형조참판(刑曹參判), 호조참판(戶曹參判) 등의 내외 상위직을 역임하였다.



〈그림 1〉 농암 이현보의 초상화, 중종 32년(1537), 모불 872호, 농암종택 소장
(출처: 국립중앙박물관 편, 『때때웃의 선비 농암 이현보』 (서울: 시월, 2007), 15)

하지만 이현보는 중종 37년(1542) 76세에 동지중추부사에 임명되었으나 질병 치료를 위한 휴가 요청이 허락되어 은퇴하였고 중앙에서 계속 벼슬을 내려주었으나 정계에 나가지 않았다. 중종 38년(1543)에 지중추부사에 임명되어 명종 1년(1546)까지 직함을 사양하였지만 불허되었다. 명종 4년(1549) 4월 정헌대부(正憲大夫)에

올랐고, 9월에는 승정대부(崇政大夫)에 오르게 되어 왕의 부름을 받았지만 나아가지 않았다. 명종 10년(1555) 음력 6월 13일에 89세로 긍구당(肯構堂)에서 운명하였고, 명종 12년(1557)에 ‘효절공(孝節公)’이란 시호가 내려졌다.

이와 같이 이현보의 반세기에 걸친 관직 경력에서 두 가지의 특징이 나타나고 있다. 하나는 경관직의 경우로 권력구조의 핵심에 해당하는 정조(政曹)와 언관(言官) 및 시종직(侍從職)의 재직 기회가 적고 속아문(屬衙門)을 비롯한 주변관직에 머무른 경우가 많았다. 그는 호조좌랑, 예조좌랑, 형조좌랑의 낭관직(郎官職)과 병조참지, 형조참의, 예조참의, 형조참판, 호조참판 등 육조의 상위직을 거쳤으나 이조의 경력이 결여되어 권력 구조의 중핵에 접근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또한 정언, 지평, 사간, 집의, 부제학 등 삼사의 관직을 두루 거치는 외형을 갖추고 있지만 지속성이 없이 산발적인 데다가 이조·병조 등과 연계되지 않아 집중적인 취합을 면치 못하였다.¹⁾

다른 하나는 외관직의 보임이 많고 재임기간이 길다는 것이다. 그는 아홉 고을의 수령과 한 도의 관찰사를 지냈고, 영흥부(永興府)의 훈도(訓導)까지 합쳐서 열한 번의 외관직을 거쳤다. 그가 외관직의 보임을 많이 받았던 것은 임관 초기에 중앙 정치에서 좌절할 정치적 이유도 있었지만, 그 보다는 부모에 대한 효도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그의 시호가 효절(孝節)인데, 조선을 통틀어 ‘효절’이란 시호를 받은 사람은 농암이 유일하다. ‘효절’의 의미는 ‘慈惠愛親’의 효(孝), ‘好廉自克’의 절(節)이다. 농암은 중종 7년(1512) 고향집 옆에 애일당(愛日堂)을 건립하였는데, 그 이유는 늙어가는 부모를 잘 모시기 위해서였다. 이후 그가 중종 12년(1517) 안동(安東) 부사, 중종 17년(1522) 10월 성주(星州)목사, 중종 24년(1528) 영천(榮川)군수, 중종 29년(1533) 경주(慶州)부윤을 제수 받은 것은 모두 부모의 봉양을 위해서였다. 그에게는 높은 벼슬이나 출세보다 중요한 것은 부모에 대한 효도였다.

농암의 학문 및 벼슬과 관련된 중요 인물들을 『농암선생문집(龔巖先生文集)』의 연보(年譜)를 통해 살펴보면, 그는 성종 17년(1486) 문광공(文匡公) 홍귀달

1) 李秉然, 「16世紀 前半期の 政局과 龔巖 李賢輔」, 安東文化研究所 編, 『龔巖 李賢輔의 文學과 思想』(安東大學校, 1992), 18.

농암(龔巖) 이현보(李賢輔)의 「애일당구경첩(愛日堂具慶帖)」 권하에 관한 연구

(洪貴達)의 문하에서 공부하였다. 성종 22년(1491) 퇴계(退溪) 이황(李滉)의 숙부인 송재(松齋) 이우(李堦)와 용산의 지장암에서 함께 공부하면서 벗이 되었다. 연산군 2년(1496)에 성균관에 들어가면서 이희보(李希輔)와 7, 8년간 교유하였다. 연산군 7년(1501) 김세필(金世弼)의 천거로 예문관검열 겸 춘추관기사관이 되었다. 중종 14년(1519) 김극성(金克成)과 안동의 영호루(映湖樓)를 유람하였고, 중종 29년(1533) 옥산(玉山)의 독락당(獨樂堂)으로 회재(晦齋) 이언적(李彦迪)을 방문하였다. 중종 34년(1538) 김정국(金正國)이 명농당(明農堂)을 내방하였다. 중종 38년(1542) 겨울 이황(李滉)과 지산정사(芝山精舍)에서 노닐었다.

그리고 간찰(簡札), 만장(挽章), 화산양로연시 및 애일당시 등에서 창수한 인물 등에서 사립파나 사립파적인 성향을 지닌 인물을 보면, 권벌(權穰), 이언적(李彦迪), 김안국(金安國), 송인수(宋麟壽), 임억령(林億齡), 송희규(宋希奎), 신상(申鎬), 김세필(金世弼), 최숙생(崔淑生), 유운(柳雲), 이해(李灌), 김구(金絳), 주세붕(周世鵬), 박상(朴祥), 장옥(張玉), 이장곤(李長坤), 어득강(魚得江), 이희보(李希輔), 안정(安珽), 이문건(李文楗), 이자(李籽), 황준량(黃俊良), 유관(柳灌), 유인숙(柳仁淑) 등이다. 한편으로 훈구파 내지 그와 근접한 인물로는 조계상(曹繼商), 이행(李荇), 이기(李芑), 김광준(金光準), 남곤(南袞) 등이 있다.²⁾

이현보 주변의 많은 인물들 중에서 가장 가까이 지낸 사람은 회재(晦齋) 이언적(李彦迪), 모재(慕齋) 김안국(金安國)이었다. 연하의 인물로는 동향(同鄉)인 퇴계 이황과 가장 가까이 지냈고, 그와 주고받은 서찰과 시들이 많이 남아 있다. 농암과 퇴계의 관계는 34세라는 연령의 차이가 있었지만, '16C 처사적 문학의 세계'를 논할 때, 그 선구에 농암이 있고, 퇴계가 그 영향을 받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는 농암이 중종 37년(1542) 76세에 은퇴하여 분강의 강호자연 속에서 탈속한 은퇴생활을 즐기던 풍류와 깊게 연계되어 있다. 농암은 퇴계에 대하여 자상한 어른의 관계를 넘어서는 것이었고, 퇴계가 농암에 대해서는 향리의 대선배에 대한 예우를 넘어서는 뚜렷한 사상적 연계와 문학적 맥락 혹은 문학적 전수 관계의 차원에서 이루어진

2) 李秉然, 「16世紀 前半期の政局과 龔巖 李賢輔」, 安東文化研究所 編, 「龔巖 李賢輔의文學과 思想」(安東大學校, 1992), 32.

지고한 인간의 만남이었다. 이러한 만남으로 인해 퇴계는 농암의 사후 그의 덕을 추모하고 인생 여정을 회고하면서 행장, 제문과 만사를 짓고, 손수 제물을 차려서 치제하는 것으로 극진함을 다하였다.³⁾ 주세붕(周世鵬)과 농암의 손서(孫壻)이며 퇴계의 문인인 금계(錦溪) 황준량(黃俊良)은 가까이서 이현보를 모셨다.

농암 이현보의 작품은 현종 6년(1665)에 간행된 『농암선생문집(龔巖先生文集)』 6권 2책 초간본과 광무 2년(1898)에 원관에 속집(續集)과 연보(年譜)를 추가하고, ‘국조실록’을 참고하여 증보판이 남아 있다. 그중에서도 관심을 끄는 것은 규장각 소장본 권3 제14장과 17장 사이에 포함된 ‘귀전록(歸田錄)’ 삼장(三章)과 ‘어부장단가(漁父長短歌)’이다. 이 ‘귀전록’ 삼장은 ‘효빈가(效嘯歌)’·‘농암가(龔巖歌)’·‘생일가(生日歌)’ 3편의 시조로 창작 경위를 밝힌 자서(自序)가 붙어 있다. ‘어부장단가’는 전해오던 잡가 『어부가』를 9장으로 개작하고, 10장으로 된 단가는 5장의 시조로 고쳐 지어 읊기도 했다.

그의 시가는 자연미를 발견하여 시가예술의 영역을 확대한 것이고, 영남 사림파에게 정신적·시가적 영향을 주어 영남가단(嶺南歌壇)을 형성하게 하였으며, 조선 초기 시가에서 조선 중기 시가로 발전하게 하는 기틀을 마련하고 교량 역할을 했다고 평가되었다.⁴⁾

3. 「애일당구경첩(愛日堂具慶帖)」 권하의 구성과 내용

「애일당구경첩(愛日堂具慶帖)」 권하의 이현보의 ‘화산양로연시(花山養老宴詩)’와 ‘애일당시(愛日堂詩)’를 앞에 두고 당시 경향의 명사들이 운을 맞추어 화답한 시들이 인물별로 실려 있다. 이 장에서는 두 시에 화답한 사람들의 수효와 운법(韻法)이 달라서 ‘화산양로연시’와 ‘애일당시’로 나누어 그 구성과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3) 李性源, 「龔巖과 退溪의 文學的 交遊樣相」, 安東文化研究所 編, 「龔巖 李賢輔의 文學과 思想」(安東大學校, 1992), 255-316.

4) 金東俊, 「李賢輔論」, 安東文化研究所 編, 「龔巖 李賢輔의 文學과 思想」(安東大學校, 1992), 8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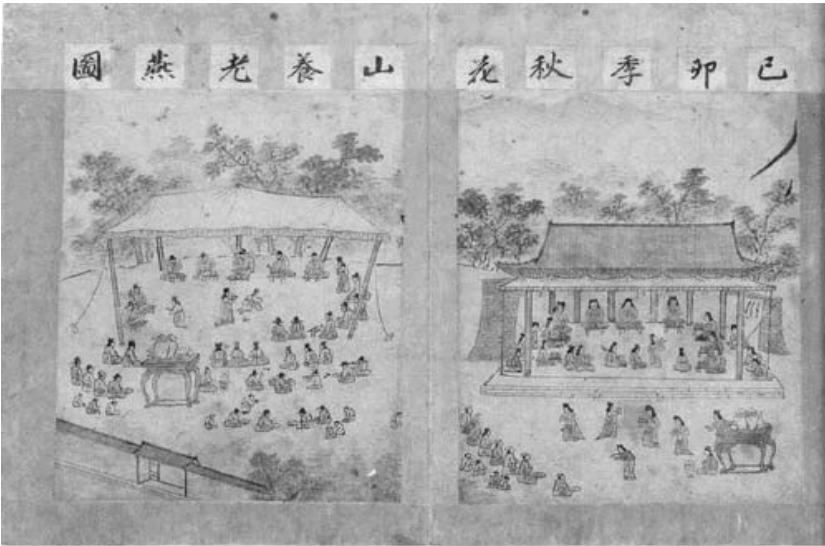
3.1 화산양로연시(花山養老宴詩)

농암이 화산양로연시를 짓게 된 동기는 「애일당구경첩」에 잘 나타나 있는데 그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

“기묘년(중종 14년, 1519) 가을에 양로연을 임지인 안동부(安東府)에서 베풀면서 관할지역 안의 80세 이상 노인을 찾았는데 사족(士族)에서부터 천례(賤隸)에 이르기까지 남녀를 불문하고 연세가 맞으면 모두 참여하게 하였더니 많기가 수백 명에 이르렀다. 당시 나의 부모님이 안동부 이웃 고을에 계셨으니 거리는 한나절 걸으면 되는 정도인데다 연세 또한 80이었다. 「맹자(孟子)」에 이르기를 “내 노인을 노인으로 섬겨서 남의 노인에게까지 미친다(老吾老 以及人之老)”고 하였으니, 이 좋은 때를 당하여 잔치 자리를 처음으로 베풀어 빈객(賓客)을 모아 시골의 노인을 즐겁게 하면서 나의 아버지를 우선하지 않는다면 인정과 사리를 어찌 안다고 하겠는가. 그래서 두분을 모셔다 함께 참여하시게 하며 내청(內廳)과 외청(外廳)으로 나누어 모두가 내 노인을 주장으로 삼아 그릇을 진열하고 주식(酒食)을 많이 준비하며 즐거움을 극진하게 하니 보는 이들은 아름답다고 칭찬하였고 나도 중하게 여겼다. 대례로 베풀하여 장수나 재상의 지위에 이르러 성찬(盛饌)을 담은 술을 진열할 정도의 존귀함을 누리며 그 아버지를 넉넉하게 봉양하는 사람이 세상에 어찌 없겠는가마는 이웃 고을의 수령이 되어 시골의 노인을 모이게 하여 양친과 함께 즐거워하시도록 하였으니 나 같은 사람도 의당 많지는 않을 것이며, 나 또한 이 뒤로 이런 모임을 다시 할 수 있을런지는 알 수 없다. 일희일구(一喜一懼)하는 마음이 자연이 기쁘게 여겨지는 마음 나머지에 일어났다. 사운시를 지어서 좌중에 보이면서 화답을 구하여 시를 모아 다른 날에 영원히 사모하는 자료로 삼으려 한다”⁵⁾라고 하였다.

5) 李賢輔, 「愛日堂具慶帖」 권하. 한국국학진흥원 국학자료부, 「귀중본자료집」 (안동: 한국국학진흥원, 2003), 69-70. “己卯秋 設養老宴於任府 搜訪境內年八十以上老 自士族至賤隸 無問男女 苟淮齒者 咸與焉 多至數百人 時 予之雙親在花之隣縣 距半日程 年且八旬 軻書云 老吾老 以及人之老 當此佳辰 開設宴席 聚賓客 娛鄉老 而不先吾親 情與事豈得歟 因邀共餐 分作內外廳 皆以吾老作主 大張供具 極盡歡欣 觀者稱美 予亦自多焉 盖仕宦而

농암 이현보는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중종 14년(1519) 중앙절(重陽節: 음력 9월 9일)에 안동부사로 있으면서 관할지역 내에 80세 이상 노인들을 관아로 초청하여 성대한 양로연(養老宴)을 베풀었다. 이 자리에는 이현보의 부모뿐 아니라 사족(士族)과 천민(賤民)의 부모까지 참석하게 하여 ‘화산양로연시’도 지어서 일부 참석자들에게 차운하도록 하고, 그 날의 연회장면인 ‘화산양로연도(花山養老燕圖)’를 그리도록 하였다(<그림 2> 참조).



<그림 2> 기묘계추화산양로연도

(출처: 국립중앙박물관 편, 『때때웃의 선비 농암 이현보』 (서울: 시월, 2007), 28-29)

농암은 <그림 2>에 묘사된 바와 같이 양로연을 열고 천(天), 연(年), 변(邊), 연(連), 연(筵)의 운을 써서 ‘화산양로연시’를 지었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至將相 享列鼎 榮養其親者 世豈無之 作宰隣邑 聚會鄉老 奉兩親同歡 如予者宜未多得 余亦不識此後 能更作此會否 一喜一懼之懷 自然生于歡感之餘 遂成四韻詩 示座中求和 留以爲他日永慕之資焉。”

농암(龔巖) 이현보(李賢輔)의 「에일당구경첩(愛日堂具慶帖)」 권하에 관한 연구

歲稔時清九月天	농사는 풍년이 들고 시절도 쾌청한 구월에,
公堂開宴會高年	관아에서 연회를 열어 연세가 많은 분들을 모셨네.
霜髯雪鬢扶携處	백발이 성성한 연세 든 분들을 모셔 오는 곳이고,
赤葉黃花爛熳邊	단풍과 황국은 광채가 나는 곁이더라.
位設尊卑酬酌遍	존비를 나누어 자리를 마련하여 술잔이 오고가는데,
廳分內外管絃連	연회하는 청사에는 내청과 외청으로 나누어 관악기와 현악기가 연주되고,
樽前綵戲人休怪	술잔 앞에 때때옷 차림으로 재롱부리는 것을 괴이하게 여기지 마시오.
太守雙親亦在筵	안동부사 이현보의 부모님도 이 양로연에 참석해 계신다네.

이 시에 화답한 사람은 「에일당구경첩」 하책의 순서대로 보면, 사지당(四止堂) 김연(金纘; 1487-1544), 상정(橡亭) 황필(黃瑋; 1464-1526), 삼당(三堂) 김영(金瑛; 1475-1528), 우계(愚溪) 황한충(黃漢忠), 남호(南湖) 손수(孫洙; ?-1522), 희락당(喜樂堂) 김안로(金安老; 1481-1527), 낙서(洛西) 이항(李抗; 1474-1533), 청라(靑蘿) 김극성(金克成; 1474-1540), 늘재(訥齋) 박상(朴祥; 1474-1530), 십청헌(十淸軒) 김세필(金世弼; 1473-1533), 지정(止亭) 남곤(南袞; 1471-1527), 곤암(困菴) 소세양(蘇世良; 1476-1528), 치청(稚淸), 풍산(豊山) 심사손(沈思遜; 1493-1528), 안분당(安分堂) 이희보(李希輔; 1473-1548), 취성후학(鷲城後學) 추계자명수(楸溪子明叟), 대이(大而) 이위(李偉; 中宗朝), 모재(慕齋) 김안국(金安國; 1478-1543), 늘현(訥軒) 이사균(李思均; 1471-1536), 용재(容齋) 이행(李荇; 1478-1534), 관포(灌圃) 어득강(魚得江; 1470-1550), 옥봉야로(玉峰野老), 헌지(獻之) 황여헌(黃汝獻; 1486-?), 적암(適庵) 조신(曹伸; 1454-1528), 축옹(蓄翁) 황효헌(黃孝獻; 1491-1532), 함종(咸從) 어영준(魚泳濬; 1483-1529), 호음(湖陰) 정사룡(鄭士龍; 1491-1570), 치호(稚湖), 죽계(竹溪) 문관(文權; 1475-1519), 옥하탄(玉下灘) 유중익(兪仲翼; 중종조), 용재(慵齋) 윤은필(尹殷弼?; 연산군-중종조), 영천(靈川) 유환(兪煥; 중종조), 월연(月淵) 이태(李迨; 1483-1536), 김세경(金世卿), 금현(琴軒) 이장곤(李長坤; 중종조), 청천(靑川) 유희령(柳希齡; 1480-1552), 유정(柳亭) 장옥(張玉; 1493-?)의 37명이다.

「에일당구경첩」의 화산양로연시에 화답한 사람의 순서대로 인물과 시의 내용

및 문집의 수록 여부 등을 조사하여 <표 1>로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표 1> 「애일당구경첩」의 화산양로연시에 화답한 인물, 시의 내용 및 문집의 수록 여부

번호	이름	화산양로연시와 화답시의 내용	문집수록여부
1	聾巖 李賢輔 (1467-1555) p.69.	歲稔時清九月天, 公堂開宴會高年. 霜髯雪鬢扶携處, 赤葉黃花爛漫邊. 位設尊卑酬酌遍, 廳分內外管絃連. 樽前綵戲人休怪, 太守雙親亦在筵.	聾巖先生文集 卷 1
2	四止堂 金縝 (1487-1544) p.72.	續荒拙 仰和高韻 眞所謂 狗尾續貂 慚汗于懷 然重違 下教錄奉 使君誠孝感旻天, 鶴髮雙親享百年. 黃菊霞觴秋欲盡, 斑衣堂室意無邊. 從今老老歡聲沸, 興化年年慶事連. 堪恨龍鍾何怙恃, 叨參此日淚垂筵. 四止堂 金縝 拜	聾巖先生文集續集 卷 2 附錄 花山養老宴次韻
3	橡亭 黃璋 (1464-1526) p.74.	次長律 一境咸欣有二天, 閭閻又幸得豐年. 佳時設宴秋風外, 喜氣生君白日邊. 共說吾侯能老老, 從知家慶復連連. 州民自此皆興孝, 萬口雷喧四撼筵. 橡亭 野老稿	聾巖先生文集에 없음
4	三堂 金瑛 (1475-1528) p.77.	次 心中不負一團天, 爲設周儀惜暮年. 孝理自吾非假外, 禮容由內不修邊. 三秋光景時方吉, 萬壽杯觴袂正連. 風樹造哀孤子慟, 三龜亭上奈虛筵. 安東金山金瑛書于樂齋	聾巖先生文集 卷 5 附錄 2 花山養老宴詩
5	愚溪 黃漢忠 p.78.	奉和 腰佩銅魚作二天, 民安物阜致豐年. 屏開雲鬢羅紉外, 尊列霜楓錦繡邊. 諸老衣冠紛雜選, 兩親車蓋亦留連. 三韓千古無雙慶, 不是尋常歌舞筵. 開燕重陽落帽天, 老人齊會樂餘年. 祥烟白帶萱堂畔, 瑞霧青浮綉幕邊. 鐵撥鯤絃聲未闕, 鳳笙龍管響相連. 德星影接文星彩, 赫赫榮光生几筵. 愚溪漁隱良佐稿	聾巖先生文集에 없음

농암(聾巖) 이현보(李賢輔)의 「애일당구경첩(愛日堂具慶帖)」 권하에 관한 연구

번호	이름	화산양로연시와 화답시의 내용	문집수록여부
6	南湖 孫洙 (?-1522) p.80.	報德由來罔極天, 高堂況復八旬年. 悅親不在真誠外, 及老須看禮數邊. 勝事一時元不偶, 歡聲百里想曾連. 茲行又值清和節, 歸設聾巖具慶筵 嘉靖元年(1522)四月南湖孫洙道源拜	聾巖先生文集에 없음
7	喜樂堂 金安老 (1481-1527) p.82.	戲綵黃堂報所天, 仁推一境遍遐年. 簪花映發蒼顏色, 舞袖飄欺皓髮邊. 入學青春回渥澤, 當榆西日爲留連. 歆君永慶還垂淚, 老尹當時亦此筵. (주석: 僕 曾忝尹鷄林 亦設此筵 看君詩帖 傷感纏切 自不覺言之及也) 嘉靖紀元(1522)清和一日 喜樂堂 病夫臥 草次	聾巖先生文集 및 喜樂堂集에 없음
8	洛西 李沆 (1474-1533) p.85.	秋風簫鼓殷晴天, 值酒華軒慰大年. 白髮蒼顏臨座上, 丹楓黃菊映尊邊. 使君喜氣怡愉裏, 父老歡聲遠近連. 得邑南歸今更好, 明年何處又開筵. 洛西浩叔拜稿	聾巖先生文集에 없음
9	靑蘿 金克成 (1474-1540) p.86.	罔極鴻恩等昊天, 惟將壽酒報椿年. 花山耆老閱餘幾, 柏府兒郎尙侍邊. 膝下烏情應未洽, 夢中臚唱定相連. 自傷每灑蒿莪淚, 祇爲他人賦壽筵. 蘿軒 成之	金先生憂亭集 卷3 七言四律 李執義賢 輔將歸覲求詩爲慶 壽之資 書以贈之 罔極鴻恩等昊天. 唯將壽酒報椿年. 花山耆老今餘幾. 柏府兒郎尙侍邊. 膝下烏情應未洽. 夢中臚唱定相連. 自傷每灑蒿莪淚. 祇爲他人賦壽筵.
10	訥齋 朴祥 (1474-1530) p.88.	次韻 棊仲 前在安東 逢九日 板輿迎致雙親 又集民間男女年耆 分廳開養老宴 屬詩留其 事 和者亦衆 今以謁觀 自禮州還過吾 解橐示 之 要一言切甚 席上步本韻云 映湖樓外水如天, 琴鶴清風閱六年. 袍笏長身生膝下, 期頤二老出罇邊. 泥塗絳縣恩波徧, 歌舞鮪班喜氣連. 南府至今留勝事, 秋來誰復敞華筵. 訥齋拜稿	聾巖先生文集 卷 5 附錄 2 花山養老宴詩 期頤二老出罇邊

번호	이름	화산양로연시와 화답시의 내용	문집수록여부
11	十清軒 金世弼 (1473-1533) p.90.	風樹人人怨彼天, 一家龜鶴獨彌年. 名都正在推恩日, 庶老歡從戲綵邊. 感發民彝增盛美, 扶携壽域更留連. 如今勝事多前觀, 聳聽中丞設慶筵. 鷄林公頌稿	十清先生集 卷3 七言律詩 李棐仲 賢 輔韻 棐仲二親 年皆八旬, 所居禮安縣, 去安東 府僅一舍, 棐仲爲府 使, 設養老禮, 奉二 親壓內外席, 後以執 義往觀嶺表, 示所題 養老宴詩, 及巖巖愛 日堂韻, 求和, 堂乃 娛奉二親之所, 卽其 鄉采水石別構,
12	止亭 南袞 (1471-1527) p.92.	南極星芒動碧天, 永嘉當日饗高年. 能推榮養三牲願, 遍及窮閭半菽邊. 官政豈容家政異, 仁聲還與頌聲連. 想看白髮扶歸處, 墮履遺巾散綺筵. 右奉次養老宴詩韻	巖巖先生文集에 없음
13	困菴 蘇世良 (1476-1528) p.94.	白雲遙望極南天, 每念椿萱喜懼年. 盛事幸逢詩句上, 淚行空落旅窓邊. 欲將斗米爲親養, 倘得長絲繫日連. 自愧浮榮應挽我, 強扶衰病忝經筵. 嘉靖元年(1522)三月日蘇世良元友	巖巖先生文集 卷 5 附錄 2 花山養老宴詩
14	稚清 p.96.	次永嘉慶席 諸公韻 送棐仲 觀親嶺南 雙親俱在嶺南天, 北闕休書尙早年. 像想公侯閭閻日, 踟躕綵舞壽尊邊. 東門祖帳簪纓合, 江上秋風霽景連. 苟仕忘親知幾許, 士林稱慶永嘉筵 稚清蒿	巖巖先生文集에 없음
15	豐山 沈思遜 (1493-1528) p.98.	鞠育慈恩是亦天, 每將椿壽祝長年. 雙親娛悅花山宴, 群老扶携落照邊. 勝事獨與佳節會, 鄉心猶自宦情連 人間此樂知難得, 日暮簪纓散舞筵. 僚末 豐山後人沈思遜	巖巖先生文集에 없음
16	安分堂 李希輔 (1473-1548) p.100.	蝶老楓愁歲暮天, 高張佳會享殘年. 黃花暍映芳樽外, 白髮婆娑錦瑟邊. 坐使一方民俗厚, 還聞四野頌聲連. 重陽處處欵烏帽, 幾箇州官設此筵. 安分堂 伯益拜稿	巖巖先生文集 卷 5 附錄 2 花山養老宴詩 蝶老楓愁歲暮天,

농암(龔巖) 이현보(李賢輔)의 「애일당구경첩(愛日堂具慶帖)」 권하에 관한 연구

번호	이름	화산양로연시와 화답시의 내용	문집수록여부
			高張佳會享殘年. 黃花掩映芳樽外. 白髮婆娑錦瑟邊. 坐使一方民俗厚. 還聞四野頌聲連. 重陽處處欵烏帽. 幾箇州官設此筵.
17	鶯城後學 楸溪子明叟 p.102-103.	次養老宴詩韻 送別棐仲赴星山牧(1522) 明公忠孝達于天, 際會昌期屬百年. 鐵面暫醉靑瑣下, 朱幡重向白雲邊. 恩頒五馬爲榮大, 勅賜雙親奉養連. 昔日花山多向齒, 伽椰耆老幾當筵. 鶯城後學 楸溪子 明叟稿	龔巖先生文集에 없음
18	大而 李偉 (中宗朝) p.104.	望切廬門近暎天, 卯申維繫度年年. 一朝歸袖風披後, 千里家山醉眼邊. 遙想萱堂開笑日, 定知萊舞接雲連. 尊中酒滿歌聲發, 獻壽瓊杯已上筵. 李偉大而	龔巖先生文集에 없음
19	慕齋 金安國 (1478-1543) p.106.	歲樂辰良正菊天, 黃堂勝宴會高年. 東溟添注芳尊裏, 南極輝臨壽席邊. 拊舞千村群醉散, 歡謠百里喜聲連. 深知老老興民孝, 具慶人間罕此筵. 李君所 臨安東府, 在嶺南. 且近東海, 故三四及之. 嘉靖壬午(1522) 聞韶 金安國國卿	龔巖先生文集 卷 5 附錄 花山養老宴詩
20	訥軒 李思均 (1471-1536) p.109.	次棐仲年兄, 養老律及愛日堂二絕韻, 錄奉. 時, 兄爲親乞補星州牧(1522). 乞得銅章下九天, 卽兼喜懼是親年. 回豆更望山三角, 歸路忙尋嶺一邊. 清漢漸分南路隔, 老星遙向北辰連. 君恩到處涂如海, 感激餘波及壽宴. 月城李思均重卿稿	龔巖先生文集에 없음
21	容齋 李荇 (1478-1534) p.112.	長繩安得掛青天, 繫日桑榆作萬年. 壽酒又稱重九節, 彩衣聊戲菊花邊. 嶺南勝事爭傳播, 漢北恩波遠接連. 父老當時聞共祝, 使君無病數開筵. 德水李擇之書	龔巖先生文集 卷 5 附錄 2 花山養老宴詩

번호	이름	화산양로연시와 화답시의 내용	문집수록여부
22	灌圃 魚得江 (1470-1550) p.114.	敬次李斐仲執義壽親詩韻 印章還領故山川, 治洽三年更有年. 樓據上游清洛左, 境連親舍白雲邊. 爲迎具慶霞觴舉, 兼及高年鳩杖連. 追讀君詩空遠想, 世間人幾有斯筵. 壬午(1522)夏春坊學士灌圃丈人魚得江書	聾巖先生文集 卷 5 附錄 2 花山養老宴詩
23	玉峰 野老 p.116.	兩人情好豈非天, 難得雙親共一年. 五馬喧闐山縣裏, 衆音交奏海樓邊. 多君此樂今有繼, 嗟我前歡竟莫連. 記取重陽尊老日, 當時勝事在賓筵. 斐仲雙親與吾父母 皆同庚故及之 玉峰野老書	聾巖先生文集에 없음
24	獻之 黃汝獻 (1486-?) p.118.	久將銅虎管南天, 長見居民借一年. 善養本非西伯下, 戲啼猶及老萊邊. 黃化爛熳杯盤盛, 白髮欹斜醉舞連. 共說瑤池王母宴, 靈桃新摘薦初筵. 獻之	聾巖先生文集에 없음
25	適庵 曹仲 (1454-1528) p.120.	謹次 養老覃恩實自天, 府公承帖使之年. 揄揚上壽分三級, 扶擁雙親押一邊. 孝理只應歸具慶, 仁風從此及顛連. 白頭黃菊無今古, 擬向高秋踏舞筵.	聾巖先生文集 卷 5 附錄 2 花山養老宴詩
26	蓄翁 黃孝獻 (1491-1532) p.122.	李先生斐仲氏 爲安東府使日用佳節 修養老禮 設宴客館 輻迎兩親 作內外宴主 先生奉觴上壽 躬執杯杓 以次飲諸老 是日極權 一府聳觀 嗟嘆以爲蓄眼未見之盛事 先生因作七言四韻詩 偏屬座中 次其韻 中都大夫士 亦續而和之 將成卷軸 以永其傳 先生一日持以示僕 恨不獲參席末 睹盛光也 忘陋次韻 頌而禱云 怡愉無事泣旻天, 列鼎何嘆負米年. 太守恩優養老日, 嬰兒戲劇弄雛邊. 觀瞻士女橋門塞, 歌詠衣冠卷軸連. 家慶由來知未艾, 今年每設去年筵. 嘉靖癸未(1523)仲春下澣 黃孝獻稿奉	聾巖先生文集 卷 5 附錄 2 花山養老宴詩
27	咸從 魚泳濬 (1483-1529) p.124.	敬次 黃化猶艷乍寒天, 開宴公堂值有年. 鳩杖畢來窮巷裏, 霜髭亂舞夕陽邊. 醉尊酒與佳賓滿, 暗齒歌從急管連. 老老餘恩拚衆醉, 他年應供惜茲年. 咸從 魚泳濬稿奉	聾巖先生文集에 없음

농암(龔巖) 이현보(李賢輔)의 「애일당구경첩(愛日堂具慶帖)」 권하에 관한 연구

번호	이름	화산양로연시와 화답시의 내용	문집수록여부
28	湖陰 鄭士龍 (1491-1570) p.126.	丈人胡福定膺天, 具慶高堂到百年. 奉檄鼎來清洛上, 稱觴舊說暎湖邊. 幾多鳩杖親霑飽, 四座簪花影更連. 共喜使君推善養, 椿萱況復壓茲筵. 嘉靖2年(1523)歲舍癸未中秋節 十玩鄭雲卿 書奉李棐仲使君	龔巖先生文集 卷 5 附錄 2 花山養老宴詩
29	稚湖 p.128.	楓樂霜寒十月天, 送君今日各衰年. 驪駒一曲都門外, 皂蓋遙隨鳥嶺邊. 魏闕分憂行已卜, 北堂歸夢夜應連. 圭璋交映群公餞, 腸斷魂銷此別筵. 壬午(1522)孟冬旬有四日稚湖	龔巖先生文集에 없음
30	竹溪 文瓘 (1475-1519) p.130.	次稚湖昆季韻 奉贈棐仲省親南行 所以忘拙 敢此者 朝見貴蒿中 亦有僕荒律一首 因知公 不以詞華爲取 而一以情志自許 故冒萬死 仰 瀆清案云耳 一片雲飛夕陽天, 椿萱競秀共高年. 身辭金闕丹墀下, 心迫萊庭彩舞邊. 稻熟壽杯香液滿, 魚肥甘旨脆腴連. 鄉人畢至參茲會, 爭道當時孝理筵. 壬午(1522)仲秋故人竹溪明之拜稿	龔巖先生文集에 없음
31	玉下灘 俞仲翼 (중종조) p.132.	同席烏臺六月天, 從今分袂會何年. (公今有歸養之志 僕亦辭臺務故云) 悅親勝事看詩句, 愛日誠心覺堂邊. 吾老未衰榮奄棄, 公親踰耆席相連. 坐中幾費菘蒿淚, 不恨當時添此筵.	龔巖先生文集에 없음
32	慵齋 尹殷弼(?) (연산군- 중종조) p.134.	次棐仲永嘉九日壽席韻 紅葉黃花欲暮天, 永嘉公館慰高年. 萊衣舞袖秋風裏, 鶴髮童顏壽爵邊. 野老已隨鄉老至, 歌聲還與筵聲連. 人間縱有三牲養, 世上無如此日筵. (公是日 兼行養老宴 故云慰高年 慵齋商老 稿奉)	龔巖先生文集에 없음
33	靈川 俞瑛 (중종조) p.136.	五冠清調拂青天, 戲着萊衣作少年. 赤葉黃花殘照裡, 蒼顏白髮暮雲邊. 鳳凰吟入歌聲鬧, 鸚鵡盃傳舞袖連. 勝事當時人共嘆, 世間能幾此開筵. 靈川 俞瑛稿	龔巖先生文集에 없음

번호	이름	화산양로연시와 화답시의 내용	문집수록여부
34	月淵 李迨 (1483-1536) p.142.	石陵當日燕秋天, 勝事爭傳已卯年. 饗老杯盤分左右, 悅親絲管作中邊. 榮光豈但傾三釜, 觀感惟應動十連. 自嘆早罹風樹恨, 儻逢佳節若爲筵. 驪興 李迨 龔巖先生文集 卷 5附錄 2 花山養老宴詩 石陵當日燕秋天, 勝事爭傳已卯年. 齒序高卑分上下, 座從男女作中邊. 榮光可是驚千載, 觀感惟應動十連. 自嘆早罹風樹恨, 每逢佳節若爲筵. 月淵先生文集卷之一詩 次李棊仲 石陵當日讌秋天, 勝事爭傳已卯年. 饗老杯盤分左右, 悅親絲管作中邊. 榮光豈但傾三釜, 觀感惟應動十連. 自歎早罹風樹恨, 每逢佳節若爲筵.	龔巖先生文集 卷 5附錄 2 花山養老宴詩 月淵先生文集卷之 一詩 次李棊仲
35	金世卿 p.144.	次養老宴詩韻 稽首慙懃謝二天, 長施恩禮敬高年. 酒兼江海應無量, 樂無乾坤豈有邊. 異事合傳朝野說, 縟儀宜盡子孫連. 白頭我亦頻承喚, 叨掛清光添錦筵. 癸未春 金世卿拜	龔巖先生文集에 없음
36	琴軒 李長坤 (중종조) p.146.	報德誰堪罔極天, 永嘉榮孝冠當年. 椿萱交映黃堂上, 飴鶴同歡彩舞邊. 錫類因應綿福慶, 推仁先已洽顛連. 又聞山嶽重開宴, 擬獻仙桃忝壽筵. 乙酉秋 希剛	龔巖先生文集 卷 5附錄 2 花山養老宴詩
37	菁川 柳希齡 (1480-1552) p.148.	奉和長律一篇 闔境熙熙五福天, 椿萱高會壽朋年. 乞言令典覃鄉曲, 奉獻深誠到日邊. 歡弄鳳簫歌宛轉, 醉扶鳩杖舞留連. 至今父老猶追想, 詔向兒童說此筵. 菁川柳希齡 書于郡齋	龔巖先生文集에 없음
38	柳亭 張玉 (1493-?) p.150.	壽域渾蒙雨露天, 花山偏荷禮高年. 政先老老黃堂上, 澤及親親白屋邊. 龜鶴分行華髮映, 椿萱壓座綵衣連. 醉歸共嘆恩如許, 願獻殘齡答盛筵. 河源後學張玉 稿	龔巖先生文集 卷 5附錄 2 花山養老宴詩

※ 위 표 次韻詩의 저작자 아래에 표기한 페이지는 “한국국학진흥원 국학자료부, 『귀중본자료집』, 안동: 한국국학진흥원, 2003.”에 수록된 것을 참고한 것임.

위의 <표 1>에 의하면, 이현보의 ‘화산양로연시’에 화답한 사람은 37명의 시 38편이다. 이 중 『농암선생문집』에 수록된 사람은 14명 14편이고, 화답한 사람의 개별문집에만 수록된 경우는 2명 2편이다. 나머지 21명 22편은 『농암선생문집』과 개별 문집에 수록되지 않고, 「애일당구경첩」에만 실려 있어 매우 중요한 자료에 해당한다. 이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다.

1) 『농암선생문집』에 수록된 사람 14명의 시 14편은 사지당(四止堂) 김연(金縝), 상정(橡亭) 황필(黃瑋), 놀재(訥齋) 박상(朴祥), 곤암(困菴) 소세양(蘇世良), 안분당(安分堂) 이희보(李希輔), 모재(慕齋) 김안국(金安國), 용재(容齋) 이행(李荇), 관포(灌圃) 어득강(魚得江), 적암(適庵) 조신(曹伸), 축옹(蓄翁) 황효헌(黃孝獻), 호음(湖陰) 정사룡(鄭士龍), 월연(月淵) 이태(李迨), 금현(琴軒) 이장곤(李長坤), 유정(柳亭) 장옥(張玉)의 시다.

2) 위의 14명의 시 중 「애일당구경첩」과 『농암선생문집』에 실린 내용에 차이가 있는 경우는 놀재 박상, 안분당 이희보, 월연 이태의 시편인데 이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놀재(訥齋) 박상(朴祥)⁶⁾의 시 앞부분에 기술되어 있는 내용을 보면 시작(詩作)의 경위를 알 수 있다. 이현보가 안동부사로 있을 때 9월 9일을 맞아 부모님과 민간의 노인들을 모아 양노연을 행하고, 시를 써서 그 일을 기록하니 화답하는 사람이 많았다. 지금 부모님을 뵈는 일로 예주로부터 돌아가는 길에 박상에게 들려 자기 짐을 풀어 보이면서 화답해주기를 간절히 바라니 그 자리에서 본운(本韻)에 차운한 것으로 되어 있다(<표 1>의 일련 순서 10번 참조).⁷⁾

6) 네이버 백과사전 박상 [朴祥] <<http://100.naver.com/100.nhn?docid=69525>> 본관 충주. 자 창세(昌世). 호 놀재(訥齋). 시호 문간(文簡). 성종 5년(1474) 진라남도 광주에서 출생하였다. 연산군 2년(1496) 진사가 되고, 연산군 7년(1501) 식년문과에 급제, 교서관정자(校書館正字) 등을 지냈다. 사가독서(賜暇讀書) 후에 사간원 헌납(獻納)이 되고, 종묘서령(宗廟署令)·임피현감(臨陂縣監) 등을 지냈다. 중종 6년(1511) 수찬(修撰) 등을 거쳐, 담양부사 때 중종반정으로 폐위된 단경왕후(端敬王后) 신씨(愼氏)의 복위를 상소, 중종의 진노를 사서 오림역(烏林驛)에 유배되었다. 중종 11년(1516)에 풀려나 의빈부도사(都事), 순천부사, 상주·충주·나주의 목사(牧使)를 지냈다. 중종 25년(1530) 사망하였다. 청백리에 녹선되고, 문장가로 이름을 떨쳐 당대의 사가(四家)로 칭송을 받았다. 이조판서에 추증, 광주 월봉서원(月峰書院)에 배향되었다. 문집 『놀재집』이 있다.

映湖樓外水如天, 琴鶴清風閱六年. 袍笏長身生膝下, 期頤二老出罇邊.
泥塗絳縣恩波徧, 歌舞鮑班喜氣連. 南府至今留勝事, 秋來誰復敞華筵.

위의 시구 중 ‘期頤二老出罇邊(연세 많으신 부모님이 잔치 자리에 나와 계시더라)’이 『농암선생문집』 권5 부록 2에는 ‘期頤二老出樽邊’으로 글자 하나가 바뀌었다. ‘罇’과 ‘樽’은 술그릇이란 뜻으로 같이 쓰는 글자이다.

둘째, 안분당(安分堂) 이희보(李希輔)⁸⁾의 시는 다음과 같다(<표 1>의 일련 순서 16번 참조).

蝶老楓愁歲暮天, 高張佳會享殘年. 黃花暎映芳樽外, 白髮婆娑錦瑟邊.
坐使一方民俗厚, 還聞四野頌聲連. 重陽處處歛烏帽, 幾箇州官設此筵.

위 시구 중 ‘黃花暎映芳樽外’와 ‘白髮婆娑錦瑟邊’이 『巖巖先生文集』 卷5 附錄 2에서는 ‘黃花掩映芳樽外’와 ‘白髮婆娑錦瑟邊’으로 되어 있어 ‘暎’이 ‘掩’으로, ‘婆娑’가 ‘婆婆’로 바뀌었다. 이 중 ‘婆娑’가 ‘婆婆’로 바뀐 것은 제대로 교정이 된 것으로 보인다. ‘婆婆’는 가냘프게 사뿐 사뿐 춤추는 모양으로 『詩經』, 『陳風』, ‘東門之粉’에 ‘子仲之子 婆婆其下(자중씨네 아가씨가 느릅나무 상수리나무 밑에서 춤을 추네)’라는 시구에서 표현된 것을 비롯하여 두보(杜甫)의 ‘악수(惡樹)’, 이지저(李之氏)의 ‘연송사일녀대념어(宴宋使日女隊念語)’, 유순(柳洵)의 ‘재옥

7) 李賢輔, 『愛日堂具慶帖』 訥齋 朴祥: “次韻 裴仲前在安東 逢九日 板輿迎致雙親 又集民間 男女年耆 分廳開養老宴 屬詩留其事 話者亦衆 今以謁觀 自禮州還 過吾 解橐示之 要一言切甚 席上步本韻云.”

8) 디지털로문화대전 李希輔 <http://guro.grandculture.net/Contents/Index?contents_id=GC03000517> 본관은 평양(平壤). 자는 백익(伯益), 호는 안분당(安分堂). 연산군 7년(1501) 식년 문과에 병과로 급제하였고, 연산군 때 홍문관수찬·이조정랑·내수사별제(內需司別提) 등을 역임하였다. 중종 1년(1506) 직제학에 제직 중 연산군의 나인 장녹수(張綠水)에게 아부하였다는 사헌부의 탄핵을 받고 이듬해 파직되었다. 중종 4년(1509) 다시 기용되어 연서도찰방(延曙道察訪)·선산부사·예빈시첨정(禮賓寺僉正)·돈령부정·장례원판결사·공조참의·니주목사·여주목사 등을 역임하였다. 중종이 여러 번 성균관대사성에 임명하려 하였으나 사헌부의 반대로 임명되지 못하다가, 중종 31년(1536) 대사성동지가 되었다. 그 뒤 오위대 호군과 첨지중추부사 등을 지냈다. 저서로는 『안분당시집(安分堂詩集)』 2권이 있다.

농암(龔巖) 이현보(李賢輔)의 「애일당구경첩(愛日堂具慶帖)」 권하에 관한 연구

중차목은시주가영이백(在獄中次牧隱詩酒歌詠李白)’에 나타난다.⁹⁾

셋째, 월연(月淵) 이태(李迨)¹⁰⁾의 시는 다음과 같다(<표 1>의 일련 순서 34번 참조).

石陵當日燕秋天, 勝事爭傳己卯年. 饗老杯盤分左右, 悅親絲管作中邊.
榮光豈但傾三釜, 觀感惟應動十連. 自嘆早罹風樹恨, 儻逢佳節若爲筵.

위 시구 중 ‘饗老杯盤分左右’와 ‘悅親絲管作中邊’과 ‘榮光豈但傾三釜’가 「月淵先生文集」권1 詩 ‘次李斐仲’에서는 그대로 실렸는데, 「농암선생문집」 권5 부록 2에서는 ‘齒序高卑分上下’와 ‘座從男女作中邊’과 ‘榮光可是驚千載’로 되어 있어 ‘饗老杯盤分左右(노인을 대접하기 위해 술잔과 그릇을 좌우로 나누고)’가 ‘齒序高卑分上下(연치의 순서와 신분의 고하에 따라 상하로 나누고)’로, ‘悅親絲管(부모님을 즐겁게 하기 위해 현악기와 관악기가 연주되고)’이 ‘座從男女(자리는 남녀를 따라서)’로 ‘豈但傾三釜(어찌 단지 녹봉을 다 기울였겠는가)’가 ‘可是驚千載(천년을 놀라게 할 만하다)’로 바뀌었다.

「애일당구경첩」에 실린 시구가 「월연선생문집」에는 그대로 실렸는데, 「농암선생문집」에는 월연의 시구 중 여러 구절을 어떤 이유에서 교정하여 수록했는지 알기 어렵다.

9) 전관수, 「한시어사전」, (서울: 국학자료원, 2002), 945.

10) NATE 한국학 이태(李迨) <<http://koreandb.nate.com/history/bang/detail?sn=2355>> ; 밀양 지역네트워크 사찰유적 월연정(月淵亭)<http://emiryang.com/board/bbs/board.php?bo_table=tou_near&wr_id=3> 이태(李迨, 1483-1536)의 자는 중예(仲豫)이고 호는 월연(月淵)이며, 본관은 여흥(驪興)이다. 연산군시대에 밀양으로 내려온 교위(校尉) 사필(師弼)의 둘째 아들이다. 중종 2년(1507) 생원시에 합격하고 중종 5년(1510)에 식년시 병과에 합격하였다. 품성이 청직(淸直)하고 문장과 필법이 저명하고 내외관직을 역임하였다. 권간(權杆)이 정치를 문란하게 함을 사초(史草)에 직서(直書)함으로써 그들의 미움을 받자, 호연히 벼슬에서 물러나 수석(水石)을 애호하여 금서(琴書)와 어조(漁釣)로 여생을 보내면서 자호를 월연주인(月淵主人) 또는 금서자(琴書子)라 하였다. 그가 머물렀던 월연정(月淵亭)은 중종 15년(1520)경에 월영사(月影寺) 옛 터에 창건하였는데, 임진왜란 당시 소실된 후 230여 년간 폐허로 있다가, 영조 33년(1757)에 6세손 지복(之復)의 주창에 따라 7세손인 수사(水使) 홍(泓)이 재물을 연출하고 예(禮)가 감역(監役)하여 복원 중건되었고, 정조 22년(1798)에 8세손 병태(秉泰)가 중종의 논의를 얻어 중수하였다. 정당의 이름은 수월쌍청(水月雙淸)을 거울에 비유하여 쌍경당(雙鏡堂)이라 일컬었다 한다.

3) 화답한 시가 『애일당구경첩』과 화답한 사람의 개별문집에만 수록된 경우는 청라(靑蘿) 김극성(金克成)과 십청헌(十淸軒) 김세필(金世弼)의 시 2편이다.

첫째, 청라(靑蘿) 김극성(金克成)¹¹⁾의 시(<표 1>의 일련 순서 9번)는 『金先生憂亭集』 卷3 七言四律에는 본 시의 앞에 “李執義賢輔將歸覲求詩爲慶壽之資書以贈之”라 하여 시의 제목이 붙어 있다. 즉 이현보가 부모를 뵈기 위해 서울에서 고향으로 돌아와 부모의 수연을 경축하기 위해 시를 부탁하니 지어 준 것이라 하였는데, 이 부분이 『애일당구경첩』에는 없다.

김극성은 이현보 부모님의 수연을 축하하면서도 한편 자신은 부모를 제대로 모시지 못했다는 죄책감에 눈물을 흘리면서 다만 남의 부모를 위해 시를 짓는 것이 스스로 가슴이 아프다는 것을 그의 시를 통해 드러내고 있는데, 시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罔極鴻恩等昊天，惟將壽酒報椿年。花山耆老問餘幾，栢府兒郎今侍邊。
膝下烏情應未洽，夢中臚唱定相連。自傷每灑蒿莪淚，祇爲他人賦壽筵。

위 시구 중 ‘惟將壽酒報椿年’과 ‘花山耆老問餘幾’ 및 ‘栢府兒郎今侍邊’이 『김선생우정집』 권3에서는 ‘唯將壽酒報椿年’과 ‘花山耆老今餘幾’ 및 ‘栢府兒郎尙侍邊’으로 되어 있어 ‘惟’가 ‘唯’로, ‘問’이 ‘今’으로, ‘今’이 ‘尙’으로 바뀌었다. 시의 의미와 평측으로 보아 문집에 정정된 ‘唯’, ‘今’, ‘尙’이 더 적절한 것으로 여겨진다.

11) 한국역대인물종합시스템 김극성(金克成) <http://people.aks.ac.kr/front/tabCon/ppl/pplView.aks?pplId=PPL_6JOa_A1474_1_0001314> ; 조선 중기의 문신. 본관은 광산(光山). 자는 성지(成之), 호는 청라(靑蘿)·우정(憂亭)이다. 연산군 2년(1496)에 사마시에 장원하고, 연산군 4년(1498) 별시문과에 장원으로 급제, 전직에 임명되어 종학사(宗學司誨)를 겸하였다. 중종 1년(1506) 중종반정에 가담, 분의정국공신(奮義靖國功臣) 4등에 녹훈되어 장악원정(掌樂院正)으로 임명되었다. 서친군수, 병조참의를 거쳐, 광성부원군(光城府院君)에 책봉되었다. 이어 의주목사, 예조참판, 경상우병사, 경상도관찰사를 역임하였다. 공조참판으로 정조사(正朝使)에 임명되어 북경을 다녀왔다. 대사헌, 예조판서, 우참찬·이조판서, 평안도관찰사, 찬성이 되었다. 병조판서 겸 지경연 세자이사로서 있다, 권신 김안로(金安老)의 미움을 받아 그 일파의 모함으로 정광필(鄭光弼)과 함께 흥덕(興德)에 유배되었다. 중종 32년(1537) 김안로가 죽자 귀양에서 풀려 우의정에 발탁되었다. 비교적 한미한 집안출신으로서 매사에 신중하였으며, 전후 세번이나 예조판서를 지낼 만큼 문학에 뛰어났고 간결하다는 평을 들었다. 저서로 『우정집』이 있다. 시호는 충정(忠貞)이다.

농암(龔巖) 이현보(李賢輔)의 「애일당구경첩(愛日堂具慶帖)」 권하에 관한 연구

둘째, 십청헌(十淸軒) 김세필(金世弼)¹²⁾의 시(<표 1>의 일련 순서 11번)는 『十淸先生集』 卷3 七言律詩는 본 시의 앞에 시의 제목 ‘李斐仲 賢輔韻’과 시를 짓게 된 내용 ‘斐仲二親 年皆八旬, 所居禮安縣, 去安東府僅一舍. 斐仲爲府使, 設養老禮, 奉二親歷內外席. 後以執義往觀嶺表, 示所題養老宴詩. 及龔巖愛日堂韻, 求和. 堂乃娛奉二親之所, 卽其鄉采水石別構.’이 들어 있다. 이 글에 의하면, “이현보가 안동부사가 된 중종 12년(1517)에 예안현에 계시는 팔순 노모를 모시고 양로연을 마련하였다. 후에 사헌부집의가 된 중종 17년(1522)에 부모님을 뵈러 영남을 방문하고 양로연 시 및 농암애일당운을 보여 주어 화답을 하였다”라고 하였으니, 중종 12년(1517)에 양로연을 하고 나서 5년 후에 다시 이현보가 영남을 방문하면서 김세필에게 양로연 시 및 농암 애일당운을 보여주고 화답을 부탁한 것을 알 수 있는 글이다. 이 시의 제목 및 시를 짓게 된 내용은 「애일당구경첩」에는 없다. 이 시의 본문은 다음과 같다.

風樹人人怨彼天, 一家龜鶴獨彌年. 名都正在推恩日, 庶老歡從戲綵邊.
感發民彝增盛美, 扶携壽域更留連. 如今勝事多前觀, 聳聽中丞設慶筵.

4) 위의 시 중 21명의 시 22편은 「농암선생문집」과 개별 문집에 수록되지 않고, 「애일당구경첩」에만 실려 있어 매우 중요한 자료에 해당한다. 이들은 삼당(三堂) 김영(金瑛), 우계(愚溪) 황한충(黃漢忠), 남호(南湖) 손수(孫洙), 희락당(喜樂堂) 김안로(金安老), 낙서(洛西) 이항(李沆), 지정(止亭) 남곤(南袞), 치청(稚淸), 풍산(豊山) 심사손(沈思遜), 취성후학(鷲城後學) 추계자명수(楸溪子明叟), 대이(大而) 이위(李偉), 눌헌(訥軒) 이사균(李思均), 옥봉야로(玉峰野老), 헌지(獻

12) 다음 백과사전 김세필[金世弼] <<http://100.daum.net/encyclopedia/view.do?docid=b03g1683a>> ; 성종 4(1473)-중종 28(1533). 본관은 경주. 자는 공석(公碩), 호는 십청헌(十淸軒)·지비옹(知非翁). 연산군 1년(1495) 사마시에 합격하고 같은 해 식년문과에 급제했다. 1504년 갑자사화로 유배되었다가, 1506년 중종반정으로 풀려나와 다시 기용되었다. 중종 15년(1520) 경연(經筵)에서 기묘사화 때 조광조(趙光祖)를 죽인 중종의 잘못을 규탄하다가 유춘역(留春驛)으로 장배되었다. 경학에 밝아 왕에게 「역학계몽(易學啓蒙)」·「성리대전(性理大全)」 등을 강론하기도 했다. 뒤에 이조판서에 추증되었다. 충주 팔봉서원(八峰書院)에 제향되었다. 저서에 「십청헌집」 4권이 있으며, 시호는 문간(文簡)이다.

之) 황여헌(黃汝獻), 함종(咸從) 어영준(魚泳濬), 치호(稚湖), 죽계(竹溪) 문관(文瓘), 옥하탄(玉下灘) 유중익(兪仲翼), 용재(慵齋) 윤은필(尹殷弼)(?), 영천(靈川) 유환(兪煥), 김세경(金世卿), 청천(菁川) 유희령(柳希齡)의 시이다. 이들의 화답시중 치청(稚淸), 취성후학(鷺城後學) 추계자명수(楸溪子明叟), 옥봉야로(玉峰野老), 치호(稚湖) 등은 이름을 알 수 없어 추후 새로운 자료의 발굴을 기대할 수밖에 없다. 그중 치청(稚淸)과 치호(稚湖)는 김정국(金正國)의 『사재집(思齋集)』에 등장하고 있어 그의 주변 인물임을 알 수 있다.

5) 위의 ‘화산양로연시’의 화답시 중 중종 17년(1522)의 연도가 있는 것은 추계자명수(楸溪子明叟), 남호(南湖) 손수(孫洙), 희락당(喜樂堂) 김안로(金安老), 곤암(困菴) 소세양(蘇世良), 모재(慕齋) 김안국(金安國), 늘현(訥軒) 이사균(李思均), 관포(灌圃) 어득강(魚得江), 치호(稚湖), 죽계(竹溪) 문관(文瓘)의 8명의 시이고, 중종 18년(1523)의 연도가 나타나는 것은 축옹(蓄翁) 황효헌(黃孝獻)과 호음(湖陰) 정사룡(鄭士龍)의 시이다. 그중 황효헌의 글 앞에는 ‘화산양로연시’에 화답하게 된 동기가 자세하게 들어 있다. 그중 일부 내용을 참조하면 “농암이 7언 4운시를 짓고, 좌중에게 권하여 그 운을 차운하도록 하였으며, 서울 사대부들도 운에 따라 화답하도록 하여 장차 권축을 만들어 영구히 전해지도록 하려는 것이다. 농암선생이 황효헌에게 가지고 와서 보여주시 잔치에 참여는 못했지만 차운하여 頌禱하도록 한다”¹³⁾라고 하였다. 농암이 『애일당구경첩』을 엮기 위해 중종 14년(1519) 중앙절에도 좌중에게 받고, 서울의 사대부들에게도 받았으며, 황효헌에게는 직접 방문하여 받은 것임을 알 수 있다.

3.2 애일당시(愛日堂詩)

농암이 애일당과 시를 짓게 된 동기는 『애일당구경첩』에 잘 나타나 있는데 그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

13) 李賢輔, 『愛日堂具慶帖』 권하. 한국국학진흥원 국학자료부, 『귀중본자료집』 (안동: 한국국학진흥원, 2003), 122. “... 先生(聾巖) 因作七言四韻詩 徧屬座中 次其韻 中都大夫士 亦續而和之 將成卷軸 以永其傳 先生一日持以示僕 恨不獲參席末 睹盛光也 忘陋次韻 頌而禱云.”

“바위가 집 동쪽 1리(里)쯤 되는 거리에 있는데 높이는 두어 길(丈) 남짓이고, 그 위는 20명 정도 앉을 수 있다. 앞에는 큰 시내를 내려다 보고 있어 여울이 격렬하면 소리에 따라서 울림이 사람의 귀를 요란스럽게 하여 말하는 소리도 듣지 못하게 하니 아마 농암(龔巖)이 이것으로 얻은 이름인가. 만일 은둔하여 승진과 떨어뜨림을 듣지 않는 사람이 기거한다면 이름의 뜻이 더욱 맞아떨어질 터이니 참으로 아름다운 지경이다. 선대에서부터 이곳을 골라 살아오면서 아름다운 때와 좋은 명절마다 자제를 데리고 여기서 노닐며 정자와 대(臺)를 지어 그 아름다움을 더 꾸미려고 하였지만 그렇게 하지 못한 것이 또한 여러 대가 되었다. 그러다가 우리 아버지 대에 이르러 더욱 늘 염두에 두셨지만 미뤄지면서 성취하지 못한 채 늘그막에 이르셨으므로 내가 그 선대의 뜻을 이루지 못함과 경치 좋은 곳이 잡초가 우거져 덮힘을 염려하여 바위를 따라 터를 잡고 돌을 겹으로 쌓아 대를 만들고 그 뒤에 당(堂)을 지어 양친께서 병이 없으시게 그 가운데서 모시고 놀며 남은 생애를 즐겁도록 하는데 이르려고 하여 이름을 짓기를 애일당(愛日堂)이라 하였으니 마음이 어찌 몹시 급하지 않겠는가. 시 2절(節)을 지어 제공(諸公)의 화답을 구하여 앞의 양로연시(養老宴詩)와 함께 남기려 한다.”¹⁴⁾ 라고 하였다.

농암은 위에 내용에서와 같이 중종 7년(1512)에 고향집 옆 분천(汾川) 기슭 농암 바위 위에 애일당(愛日堂)을 건립하고 부모에 대한 효도를 위해 명절마다 이곳에서 때때옷 옷을 입고 부모를 즐겁게 해드렸다. 애일당의 의미는 얼마 남지 않은 날을 아껴어버이께 효도하겠다는 의미를 담은 것이고, 이를 위해 향(鄉), 장(長), 당(堂)의 운을 써서 ‘애일당시(愛日堂詩)’는 지었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14) 李賢輔, 「愛日堂具慶帖」 권하. 한국국학진흥원 국학자료부, 「귀중본자료집」 (안동: 한국국학진흥원, 2003), 70-71. “巖在家一里許 高數丈餘 上可坐二十人 前臨大川 灘激則 響應 聒亂人耳 聲語不聞 意者 龔巖其以此而得名歟 如有隱而黜陟不聞者居焉 則名義尤合 眞佳境也 自先世卜居以來 每於佳辰令節 率子弟 遊于此 欲作亭臺 增飾其美而不果者 蓋累代 迄我家君 尤常念念 而遷延不就 以至於老 余悶其先志之不遂 勝境之蕪沒 因巖而基 疊石爲臺 作堂其上 欲及雙親之無恙 侍遊其中 以娛餘年 名之日愛日堂 情志其不急急歟 成詩二絕 求和諸公 欲與前之養老詩 並留云.”

十室宣城是我鄉
 祖先餘慶積流長
 皤皤雙老年踰耄
 膝下雲仍已滿堂
 親老那堪戀帝鄉
 古人猶說事君長
 平泉世業汾川曲
 新作巖邊具慶堂

조그만 고을 예안 나의 고향,
 선조들의 積善餘慶 길이 쌓여 있네.
 백발 어머니 80세가 넘었고
 슬하 자손들이 마루에 가득하네.
 어머니 늙으심에 어찌 대궐만 그리워하라,
 고인들은 임금 섬기는 날은 많다고 한다.
 아름다운 고향 분강 구비에
 새로 바위 위에 정자를 지었네.

이 시에 화답한 사람은 「애일당구경첩」 하책의 순서대로 보면, 이현보를 제외하고 35명이 화답을 하였다. 이들은 위의 「화산양로연시」에 화답한 37명 중 낙서(洛西) 이항(李沆; 1474-1533), 축옹(蓄翁) 황효헌(黃孝獻; 1491-1532), 치호(稚湖)의 3인이 제외되고, 놀암(訥庵) 홍언국(洪彦國)이 새로 추가되었다.

「애일당구경첩」의 ‘애일당시’에 화답한 사람의 순서대로 인물과, 시의 내용 및 문집의 수록 여부 등을 조사하여 <표 2>로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표 2> 「애일당구경첩」의 「애일당시」에 화답한 인물,
 시의 내용 및 문집의 수록 여부

번호	이름	애일당시와 화답시의 내용	문집수록여부
1	聾巖 李賢輔 (1467-1555) p.70.	聾巖愛日堂詩 十室宣城是我鄉, 祖先餘慶積流長. 皤皤雙老年踰耄, 膝下雲仍已滿堂. 親老那堪戀帝鄉, 古人猶說事君長. 平泉世業汾川曲, 新作巖邊具慶堂.	聾巖先生文集 卷 1
2	四止堂 金縝 (1487-1544) p.73.	清涼山水冠南鄉, 浩浩汾川一曲長. 卜築聾巖今幾歲, 八旬具慶在高堂. 高情閒墅水雲鄉, 綵舞歡餘浩氣長. 花竹成林知雅趣, 依階繞砌映華堂.	聾巖先生文集에 없음.
3	橡亭 黃璋 (1464-1526) p.74.	次二絕 家世從前宅是鄉, 籠山流水發源長. 從今別尋巖邊著, 有子如君真肯堂. 遊子終能歸故鄉, 還家日月不知長. 斑衣日日是間戲, 舉日雙親在北堂.	聾巖先生文集에 없음.

농암(龔巖) 이현보(李賢輔)의 「애일당구경첩(愛日堂具慶帖)」 권하에 관한 연구

번호	이름	애일당시와 화답시의 내용	문집수록여부
4	三堂 金瑛 (1475-1528) p.76-77	松柏岡陵擁一鄉, 爭輸鶴筭歲年長. 蟠桃一獻萱椿笑, 天遣羲和駐此堂. 纍纍雙永塚嘉鄉, 宰樹西風葉韻長. 老子爲誰知愛日, 不堪哀淚到君堂.	龔巖先生文集 卷5 附錄 2 松柏岡陵擁一鄉, 爭輸遐 算歲年長, 蟠桃一獻萱椿 笑, 天遣羲和駐此堂. “纍纍雙永塚嘉鄉 …” 의 구절은 龔巖先生文 集에 없음.
5	愚溪 黃漢忠 p.79.	君今衣綉晝還鄉, 具慶堂深白日長. 獻壽筵開和樂處, 戲披萊服舞中堂. 桑梓陰農是故鄉, 翁孃無恙壽延長. 年來若覺南柯夢, 巖畔重開綠野堂.	龔巖先生文集에 없음.
6	南湖 孫洙 (?-1522) p.81.	嶠南聞有禮安鄉, 最說分川一帶長. 富媪只應慳不得, 公今愛日爲構堂. 公會遺愛密陽鄉, 復此花山化日長. 重是百齡榮養地, 幾看綵舞繞高堂. 嘉靖 元年(中宗17, 1522) 四月 南湖 孫洙 道 源拜敬次	龔巖先生文集에 없음.
7	喜樂堂 金安老 (1481-1527) p.83-84.	家世人稱陰德鄉, 雙親八十慶能長. 人間駐景元無地, 惟有君家愛日堂. 情深西日苦思鄉, 百歲晨昏未信長. 日進壽尊娛鶴髮, 一春和氣謔高堂. 嘉靖 紀元(1522) 清和(2월) 一日 希樂堂病 夫臥草次	龔巖先生文集에 없음.
8	青蘿 金克成 (1474-1540) p.87.	一家興孝感諸鄉, 曾聽南人說話長. 千古龔巖知有主, 雲仍百世保斯堂. 有時鷄酒聚隣鄉, 非竹非絲樂意長. 主勸賓酬旋醉舞, 雙親壽考坐中堂.	金先生憂亭集 卷之一 一七言絕句 李執義賢輔將歸觀求詩 爲慶壽之資 書以贈之 一家興孝感諸鄉, 曾聽南 人說話長. 千古龔巖今有 主, 雲仍百世保斯堂. (龔巖李君. 爲親作亭. 每獻壽, 必於此) 有時鷄酒聚隣鄉, 非竹非 絲樂意長. 主勸賓酬旋起 舞, 翁孃壽考坐中堂.

번호	이름	애일당시와 화답시의 내용	문집수록여부
9	訥齋 朴祥 (1474-1530) p.89.	又和愛日堂韻 禮城南嶠是君鄉, 千丈雙親鶴髮長. 愛日情深酬罔極, 萊衣戲處悅高堂. 休沐南臺出帝鄉, 嘶風驄馬嶺途長. 君王孝理今偏重, 故許歸寧愛日堂.	龔巖先生文集 卷5 附錄 2 訥齋先生續集 卷第一 次李執義裴仲甫愛日堂韻, 與詩上同日賦. 嘶風驄馬嶺雲長.
10	十淸軒 金世弼 (1473-1533) p.91.	忠信曾聞禮有鄉, 分川新築慶還長. 世誼不到龔巖上, 翠色椿萱蔭北堂. 小白山南聚德鄉, 掛繩西日意偏長. 蟠桃未結三千子, 奉水斑衣更上堂.	十淸先生集 卷之二 世誼不到龔巖上 蟠桃已結三十實
11	止亭 南袞 (1471-1527) p.93.	分川一曲是僊鄉, 駐得春輝特地長. 白首兒啼能有幾, 祇應喚做老萊堂. 仁孝家聲擅一鄉, 仍知餘慶自應長. 胸中喜懼無人識, 只有跋烏照此堂.	龔巖先生文集 卷5 附錄 2
12	困菴 蘇世良 (1476-1528) p.94-95.	右奉次愛日堂詩韻 禮安桑梓是君鄉, 門慶同流洛水長. 人世已修爲子職, 光陰還惜去堂堂. 半在京師半在鄉, 宦情應短野情長. 春風更憶萊衣戲, 雙秀峯前孝友堂. 嘉靖 元年(中宗17, 1522) 三月 蘇世良 元友	龔巖先生文集 卷5 附錄 2
13	稚淸 p.97.	金稻今應滿故鄉, 送君歸去興何長. 江東一棹猶云快, 況乃雙親在北堂.	龔巖先生文集에 없음.
14	豊山 沈思遜 (1493-1528) p.98-99.	聞說宣城魚鳥鄉, 龔巖名義意便長. 箇中喜懼情思切, 白日明明照此堂. 舉世悠悠一醉鄉, 如公至樂更誰長. 白雲望斷天南北, 欲解多冠躋此堂.	龔巖先生文集에 없음.
15	安分堂 李希輔 (1473-1548) p.100-101.	龔巖形勝冠南鄉, 物外乾坤日月長. 高會朱幡呈綵戲, 茅亭眞箇耆英堂. 烟雨孤村魚鳥鄉, 巖邊流水發源長. 天公亦解娛親意, 四面雲山擁此堂.	龔巖先生文集 卷5 附錄 2 高會朱幡呈彩戲
16	鷺城後學 楸溪子明叟 p.103-104.	次愛日堂詩韻 汾川一曲是公鄉, 聞說仙關日月長. 八十雙親具慶下, 彩衣今復戲高堂. 征旆搖搖指故鄉, 壽尊開處慶延長. 千年罕覩公家事, 鶴髮雙親在北堂.	龔巖先生文集에 없음.

농암(聾巖) 이현보(李賢輔)의 「애일당구경첩(愛日堂具慶帖)」 권하에 관한 연구

번호	이름	애일당시와 화답시의 내용	문집수록여부
17	大而 李偉 (中宗朝) p.105.	白雲飛處是桑鄉, 强着征鞭客路長. 山館黃花開爛熳, 年光背我去堂堂.	聾巖先生文集에 없음.
18	慕齋 金安國 (1478-1543) p.107-108.	奉次聾巖愛日堂韻 堂有山水清勝 娛親新構水雲鄉, 歌管朝朝樂意長. 還似幔亭張會日, 曾孫滿眼拜高堂. 塵蹤曾記訪仙鄉, 溪洞留春化日長. 千歲椿萱交暎翠, 壽觴霞液共升堂. 安國 按嶺南日 曾訪柴仲所居 升堂壽雙親 年 俱八袞 尙康强 溪洞窈窕 山水清麗 況然若入 桃源 而值仙老 嘉靖 壬午(중종17, 1522) 聞韶 金安國 國卿	聾巖先生文集 卷5 附錄 2 慕齋先生集 卷3
19	訥軒 李思均 (1471-1536) p.111.	古人衣錦好還鄉, 況復雙親壽共長. 此去前途猶萬里, 歲寒松老棟明堂. 聞君家世善居鄉, 餘慶于今一倍長. 見說聾巖釘有額, 愛親知愛景堂堂. 嘉靖 元年 壬午(중종17, 1522) 孟冬(10월) 有日 月城 李思均 重卿 稿	聾巖先生文集에 없음.
20	容齋 李苻 (1478-1534) p.113.	具慶筵中聚一鄉, 日華苦短意何長. 若爲乞得金丹鼎, 永世怡愉奉北堂. 家居不羨白雲鄉, 鶴髮俱存樂自長. 甲第紛紛列鼎食, 何如溫清此高堂.	聾巖先生文集 卷5 附錄 2
21	灌圃 魚得江 (1470-1550) p.115.	闕下今還憶故鄉, 夢魂不憚道途長. 繡衣此日歸寧處, 依舊聾巖對北堂. 昔羅風樹永之鄉, 君作交承六載長. 十五年來吾已矣, 羨君馳駟拜高堂. 壬午(中宗17, 1522)夏 春坊學士 灌圃丈人 魚 得江書	聾巖先生文集에 없음.
22	玉峰 野老 p.117.	久踏紅塵寄帝鄉, 一身偏荷睿恩長. 夢回故國松楸鬱, 空羨宣城具慶堂.	聾巖先生文集에 없음.
23	獻之 黃汝獻 (1486-?) p.119.	求官奉養近家鄉, 欲托千絲繫日長. 每到佳晨呼子姓, 板輿扶擁上高堂. 駟馬高車返故鄉, 世間榮幸亦應長. 爭如千騎里門下, 歲歲稱觴壽北堂.	聾巖先生文集에 없음.
24	適庵 曹伸 (1454-1528) p.120-121.	宣城人比鄭公鄉, 際會風雲語合長. 報得春輝當愛日, 聾巖巖上峙斯堂. 土貴生來不去鄉, 某丘某水感懷長. 幾年卽罷徜徉地, 突兀俄看肯構堂.	聾巖先生文集 卷5 附錄 2 「愛日堂具慶帖」 p.120에 는 ‘宣城人比鄭公鄉’, 際 會만 있고, p.121에는 백 지여서 ‘宣城人比鄭公鄉, 際會’이하의 내용이 없음.

번호	이름	애일당시와 화답시의 내용	문집수록여부
25	咸從 魚泳濬 (1483-1529) p.125.	宣城聞說是仙鄉, 愛日堂前日政長. 誠孝從來興感遠, 雲仍應不負斯堂. 孝行真堪比一鄉, 自家餘慶料應長. 不安京洛人休怪, 清夢長歸愛日堂.	龔巖先生文集에 없음.
26	湖陰 鄭士龍 (1491-1570) p.127-128.	分符常得近桑鄉, 早判君親事短長. 爲問前賢誇畫錦, 何如愛日扁新堂. 安得抽簪返我鄉, 庭闈百歲駐春長. 半生剛被浮名縛, 松菊渾燕十玩堂. 嘉靖2년(중종18, 1523) 歲舍癸未 中秋節 十玩 鄭雲卿 書奉李斐仲使君	龔巖先生文集 卷5 附錄 2
27	竹溪 文瓘 (1475-1519) p.131.	晨辭魏闕五雲鄉, 匹馬南行樂更長. 屋上青山屋下水, 君家俱慶在高堂. 壬午(中宗 17, 1522)仲秋 故人 竹溪 文瓘 明之 拜稿	龔巖先生文集에 없음.
28	玉下灘 俞仲翼 (중종조) p.133.	世卜嶠南山水鄉, 簪纓門地慶何長. 紛紛世上人無數, 始得君家具慶堂. 君家孝慶化南鄉, 頗覺人人善善長. 戲綵當年何地着, 龔巖東有數間堂.	龔巖先生文集에 없음.
29	慵齋 尹殷弼(?) (연산군-중종조) p.135.	星山佳致是仙鄉, 竹嶼花齋引興長. 倚閭今日須歸養, 好把雙旌慰北堂.	龔巖先生文集에 없음.
30	靈川 俞瑛 (중종조) p.137.	一區形勝是仙鄉, 壺裡乾坤白日長. 萱草百年春不老, 孝思端合也名堂.	龔巖先生文集에 없음.
31	訥庵 洪彥國 (중종조) p.139-141.	제1수: 清涼之下有幽鄉, 萬壑千巖各自長. 積慶向來爭幾許, 矧今肯構惜暉堂. 제2수: 曲曲汾川號勝鄉, 堂成此日意何長. 萬朝紅紫應無數, 爲問當年有是堂. 제3수: 清時宦途好還鄉, 今古人人說口長. 如子孝榮真不得, 相州應少畫錦堂. 제4수: 龔巖秀士學于鄉, 一日聲光徹上長. 更築亭臺能駐景, 親俱八袂倚新堂. 제5수: 傳業詩書擅禮鄉, 羨君仁孝揭時長. 子生罔極酬恩大, 汗面慚登愛敬堂.	龔巖先生文集 卷5 附錄 2에는 제2, 제3, 제4 수는 실려 있고, 제1수와 제5수는 제외됨.

농암(聾巖) 이현보(李賢輔)의 「애일당구경첩(愛日堂具慶帖)」 권하에 관한 연구

번호	이름	애일당시와 화답시의 내용	문집수록여부
32	月淵 李迨 (1483-1536) p.143.	人世紛紛宦作鄉, 事親能得幾時長. 惟公愛着西飛日, 故遣蒼巖插畫堂. 遙望南頭買首鄉, 聾巖別做孝思長. 後人請視斯爲範, 喜懼深情不在堂.	聾巖先生文集 卷5 附錄 2 誰知愛日情如許, 千仞岡頭插畫堂. 月淵先生文集 卷 1 千仞岡頭插畫堂
33	金世卿 p.145.	層簷妍緻擅桑鄉, 況奉雙親樂日長. 孝子百年心計緊, 暗祈時序莫堂堂. 事實宜稱孝子鄉, 日光低繞畫簷長. 年年壽節人爭羨, 摠爲椿萱共在堂.	聾巖先生文集에 없음.
34	琴軒 李長坤 (중종조)	菊潭家世水雲鄉, 鶴髮萱椿流慶長. 早向鯉庭輸義分, 他年枉道許升堂. 白雲蒼巖是僊鄉, 洞裏泉源出派長. 一生純孝天應格, 萬壽長臨愛日堂. 乙酉(중종 20, 1525) 秋 希剛	聾巖先生文集 卷5 附錄 2
35	靑川 柳希齡 (1480-1552)	家世靑巖樹石鄉, 松囱竹徑日偏長. 陔蘭細擷堪怡養, 白髮綦巾共一堂. 右聾巖 桑榆翳翳莫知鄉, 誰把長繩繫許長. 回斡餘暉戈有力, 陽烏應駐德星堂. 友愛日 不獨恂恂化一鄉, 熊幡到處頌聲長. 五州孝理多懷惠, 人愛黃堂祝北堂. 右頌德	聾巖先生文集에 없음.
36	柳亭 張玉 (1493-?)	誠孝平生化一鄉, 義和知愛駐偏長. 年年祇願添眉壽, 金玉何須更滿堂. 右愛日堂 藉甚聾巖獨擅鄉, 芳名從此更垂長. 他年若也平如砥, 依舊椿萱蔭一堂. 右聾巖	聾巖先生文集에 없음.

위의 <표 2>에 의하면, 이현보의 '애일당시'에 화답한 사람은 35명의 시 68편이다. 이중 「농암선생문집」에 수록된 사람은 11명의 시 27편이고, 화답한 사람의 개별문집에만 수록된 경우는 2명의 시 4편이다. 나머지 22명의 시 37편은 「농암

선생문집』과 개별 문집에 수록되지 않고, 『에일당구경첩』에만 실려 있어 매우 중요한 자료에 해당한다. 이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다.

1) 『농암선생문집』 권 5 부록 2에는 11명의 시 27편이 수록되었는데, 이들은 삼당(三堂) 김영(金瑛), 눌재(訥齋) 박상(朴祥), 지정(止亭) 남곤(南袞), 안분당(安分堂) 이희보(李希輔), 모재(慕齋) 김안국(金安國), 용재(容齋) 이행(李荇), 적암(適庵) 조신(曹伸), 호음(湖陰) 정사룡(鄭士龍), 눌암(訥庵) 홍언국(洪彦國), 월연(月淵) 이태(李迨), 금현(琴軒) 이장곤(李長坤)이다.

2) 위의 9명의 시 중 『에일당구경첩』과 『농암선생문집』에 실린 내용에 차이가 있는 경우는 삼당(三堂) 김영(金瑛), 눌재(訥齋) 박상(朴祥), 안분당(安分堂) 이희보(李希輔), 적암(適庵) 조신(曹伸), 월연(月淵) 이태(李迨)이다.

첫째, 삼당(三堂) 김영(金瑛)의 시(<표 2>의 일련번호 4번 참조)는 『에일당구경첩』에는 7언율시로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松柏岡陵擁一鄉, 爭輪鶴筭歲年長. 蟠桃一獻萱椿笑, 天遣羲和駐此堂.
纍纍雙塚永嘉鄉, 宰樹西風葉韻長. 老子爲誰知愛日, 不堪哀淚到君堂.

위의 시구 중 ‘爭輪鶴筭歲年長(학의 장수를 다투어 신고 와서 오래도록 수를 누린다)’이 『농암선생문집』 권 5 부록 2에는 ‘爭輪遐算歲年長’으로 ‘鶴’의 글자가 ‘遐’로 바뀌었다. 7언율시 중 ‘纍纍雙塚永嘉鄉 … 不堪哀淚到君堂’의 구절은 『농암선생문집』 권 5 부록 2에는 생략되었다.

둘째, 안분당(安分堂) 이희보(李希輔)의 시는 다음과 같다(<표 2>의 일련 순서 15번 참조).

聳巖形勝冠南鄉, 物外乾坤日月長. 高會朱幡呈綵戲, 茅亭眞箇者英堂.
烟雨孤村魚鳥鄉, 巖邊流水發源長. 天公亦解娛親意, 四面雲山擁此堂.

위 시구 중 ‘高會朱幡呈綵戲’가 『농암선생문집』 권 5 부록 2에서는 ‘高會朱幡呈彩戲’로 되어 있어 ‘綵’가 ‘彩’로 바뀌었다. 이 시구의 의미는 ‘성대한 연회에

농암(龔巖) 이현보(李賢輔)의 「애일당구경첩(愛日堂具慶帖)」 권하에 관한 연구

관직이 높은 사람이 색동옷을 입고 부모를 즐겁게 하네'라는 뜻이어서 '綵'보다는 '彩'가 더 적절한 것으로 여겨진다.

셋째, 적암(適庵) 조신(曹伸)의 시(<표 2>의 일련 순서 24번 참조)는 「애일당구경첩」 p.120에는 '宣城人比鄭公鄉', 際會만 있고, p.121에는 백지여서 '宣城人比鄭公鄉, 際會' 이하의 내용이 없는데 이는 문집의 편찬과정에서는 남아 있다가 후에 일실된 것으로 여겨진다.

「농암선생문집」 권5 부록 2에는 다음과 같이 시의 내용이 모두 남아 있다.

宣城人比鄭公鄉, 際會風雲語合長. 報得春輝當愛日, 龔巖巖上峙斯堂.
士貴生來不去鄉, 某丘某水感懷長. 幾年卽罷徜徉地, 突兀俄看肯構堂.

넷째, 눌암(訥庵) 홍언국(洪彦國)의 시(<표 2>의 일련 순서 31번 참조)는 「애일당구경첩」에는 5수가 실렸는데, 「농암선생문집」 권5 부록 2에는 제1수와 제5수가 빠지고 제2수, 제3수, 제4수만 실렸다.

다섯째, 월연(月淵) 이태(李迨)의 시는 다음과 같다(<표 2>의 일련 순서 32번 참조).

人世紛紛宦作鄉, 事親能得幾時長. 惟公愛着西飛日, 故連蒼巖插畫堂.
邈望南頭買公鄉, 龔巖別做孝思長. 後人請視斯爲範, 喜懼添情不在堂.

위 시구 중 '惟公愛着西飛日(오직 공은 서쪽으로 지는 해에 집착을 해서)'과 '故連蒼巖插畫堂(일부러 푸른 바위를 연해서 애일당을 짓게 했는가)'은 「농암선생문집」 권5 부록 2에서는 '誰知愛日情如許(누가 애일의 정이 저와 같음을 알겠는가)', '千仞岡頭插畫堂(천길 언덕 위에 애일당을 짓다)'으로 바뀌고, 月淵先生文集 卷 1에서는 '千仞岡頭插畫堂'만 바뀌었다.

「애일당구경첩」에 실린 시구가 「月淵先生文集」에는 일부만 교정했는데, 「농암선생문집」에는 월연의 시구 중 여러 구절을 어떤 이유에서 교정하여 수록했는지 알기 어렵다.

3) 화답한 시가 『애일당구경첩』과 화답한 사람의 개별문집에만 수록된 경우는 청라(靑蘿) 김극성(金克成)과 십청헌(十淸軒) 김세필(金世弼) 시 4편이다.

첫째, 김극성의 시(<표 2>의 일련 순서 8번)는 『金先生憂亭集』 卷1에 실려 있다. 본 시의 앞에 ‘李執義賢輔將歸覲求詩爲慶壽之資 書以贈之’라 하여 시의 제목이 붙어 있고, 시의 4구 다음에는 ‘龔巖李君 爲親作亭 每獻壽 必於此’ 주석이 들어가 있는데, 이 부분이 『애일당구경첩』에는 없다. 시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一家興孝感諸鄉，曾聽南人說話長。千古龔巖知有主，雲仍百世保斯堂。
有時鷄酒聚隣鄉，非竹非絲樂意長。主勸賓酬旋醉舞，雙親壽考坐中堂。

위 시구 중 ‘千古龔巖知有主’와 ‘主勸賓酬旋醉舞’ 및 ‘雙親壽考坐中堂’이 『김선생우정집』 권1에서는 ‘千古龔巖今有主’와 ‘主勸賓酬旋起舞’ 및 ‘爺孃壽考坐中堂’으로 되어 있어 ‘知’가 ‘今’으로, ‘醉’가 ‘起’로, ‘雙親’이 ‘爺孃’으로 바뀌었다. 시의 의미와 시어 선택이 문집에 정정된 ‘今’, ‘起’, ‘爺孃’이 더 적절한 것으로 여겨진다.

둘째, 김세필의 시(<표 2>의 일련 순서 10번)는 『十淸先生集』 卷2에 실려 있다. 이 시의 본문은 다음과 같다.

忠信會聞禮有鄉，分川新築慶還長。世誼不到龔巖上，翠色椿萱蔭北堂。
小白山南聚德鄉，掛繩西日意偏長。蟠桃未結三千子，奉水斑衣更上堂。

위의 시구 중에서는 ‘世誼不到龔巖上(시끄러운 세상소리 농암에는 안들리고)’과 ‘蟠桃未結三千子(신선복숭아에는 삼천 열매 달리지 아니 하니)’가 『十淸先生集』 卷2에서는 ‘世誼不到龔巖上’과 ‘蟠桃未結三十實’로 되어 있어 ‘誼’가 ‘暄’으로, ‘三千子’가 ‘三十實’로 바뀌었다.

4) 위의 시중 22명의 시 37편은 『농암선생문집』과 개별 문집에 수록되지 않고, 『애일당구경첩』에만 실려 있어 매우 중요한 자료에 해당한다. 이들은 사지당(四止堂) 김연(金演), 상정(橡亭) 황필(黃瓚), 우계(愚溪) 황한충(黃漢忠), 남호(南湖) 손수(孫洙), 희락당(喜樂堂) 김안로(金安老), 곤암(困菴) 소세량(蘇世良), 치

농암(龔巖) 이현보(李賢輔)의 「애일당구경첩(愛日堂具慶帖)」 권하에 관한 연구

청(稚淸), 풍산(豊山) 심사손(沈思遜), 취성후학(鷺城後學) 추계자명수(楸溪子明叟), 대이(大而) 이위(李偉), 눌헌(訥軒) 이사균(李思均), 관포(灌圃) 어득강(魚得江), 옥봉야노(玉峰野老), 헌지(獻之) 황여헌(黃汝獻), 함종(咸從) 어영준(魚泳濬), 죽계(竹溪) 문관(文瓘), 옥하탄(玉下灘) 유중익(兪仲翼), 용재(慵齋) 윤은필(尹殷弼)(?), 영천(靈川) 유환(兪煥), 김세경(金世卿), 청천(靑川) 유희령(柳希齡), 유정(柳亭) 장옥(張玉)의 시이다. 이들 자료는 추후 새로운 자료의 발굴을 기대할 수 있어 그 가치가 더욱 크다고 할 수 있다.

5) 위의 ‘애일당시’의 화답시 중 연도가 나타나는 것은 중종 17년(1522)의 연도가 있는 것은 남호(南湖) 손수(孫洙), 희락당(喜樂堂) 김안로(金安老), 곤암(困菴) 소세량(蘇世良), 모재(慕齋) 김안국(金安國), 눌헌(訥軒) 이사균(李思均), 관포(灌圃) 어득강(魚得江), 죽계(竹溪) 문관(文瓘)의 7명의 시이고, 중종 18년(1523)의 연도가 나타나는 것은 호음(湖陰) 정사룡(鄭士龍)의 시이며, 중종 20년(1525)의 연도가 보이는 것은 금현(琴軒) 이장곤(李長坤)의 시이다.

‘화산양로연시’와 ‘애일당시’의 화답시의 연도 중 가장 빈도수가 많은 것은 중종 17년(1522)이고, 다음은 중종 18년(1523)이며, 중종 20년(1525)이 가장 늦다. 위에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이 책의 편집은 중종 14년(1519)부터 중종 20년(1525) 사이에 이루어진 것으로 여겨진다.

4. 「애일당구경첩(愛日堂具慶帖)」 권하의 가치

「애일당구경첩」의 가치는 세 가지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다.

첫째, 「애일당구경첩」 권하는 보물 1202호이다. 이 책을 통해 조선시대 목민관의 양로잔치와 효의 풍속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 수 있다. 조선은 유교를 숭상하는 국가로 노인을 공경하는 제도를 많이 시행하였는데, 그중의 하나가 봄·가을에 고을의 노인을 모아 양로잔치를 여는 것이었다. 농암 이현보는 위에서도 살펴본 바와 같이 안동부사로 재직하던 중종 14년(1519) 중앙절에 부모와 사족(士族)과

천민(賤民)의 부모에 이르기까지 80세 이상 노인들을 관아로 초청하여 성대한 양로연(養老宴)을 베풀었다. 이곳에서 이현보는 노인들을 즐겁게 하기 위해¹⁵⁾ 고을 원의 신분으로 때때옷을 입었다. 그는 ‘화산양로연시(花山養老宴詩)’도 지어서 일부 참석자들에게 차운하도록 하였고, 역사적 현장을 ‘화산양로연도’로 그리도록 하였다. 이후 경향의 사대부를 비롯하여 여러 사람에게 부탁하여 차운시를 받았고, 이들 자료를 모아 성책하였다. 이는 조선 풍속의 하나인 양로행사를 통하여 나타난 효행과 성종-명종 시기에 농암과 교류했던 사람들의 효의 풍속을 이해할 수 있는 중요한 증거기록에 해당한다.

둘째, 『애일당구경첩』에는 성종-중종 시기 사림파로 활동했던 인물들이 집중되어 있어 농암이 교류했던 중요인물들과 그들의 문학성을 살펴 볼 수 있다. 농암의 ‘화산양로연시’에 차운한 사람이 37명, 애일당시에 차운한 사람이 35명인데, 두 시에 중복된 사람을 제외하면 실체는 38명이 시 106편을 차운하였다. 이들의 시 중에서 ‘화산양로연시’에 차운한 14명의 시 14편과 ‘애일당시’에 화답한 사람 11명의 시 27편은 『농암선생문집』에 재 수록되었다. 이중 중복된 사람을 제외하면 16명인데, 사지당(四止堂) 김연(金纘), 삼당(三堂) 김영(金瑛), 늘재(訥齋) 박상(朴祥), 지정(止亭) 남곤(南袞), 곤암(困菴) 소세량(蘇世良), 안분당(安分堂) 이희보(李希輔), 모재(慕齋) 김안국(金安國), 용재(容齋) 이행(李荇), 관포(灌圃) 어득강(魚得江), 적암(適庵) 조신(曹伸), 축옹(蓄翁) 황효헌(黃孝獻), 호음(湖陰) 정사룡(鄭士龍), 월연(月淵) 이태(李迨), 늘암(訥庵) 홍언국(洪彦國), 금헌(琴軒) 이장곤(李長坤), 유정(柳亭) 장옥(張玉)이다. 이들이 이현보와 가장 가까운 사람들로 여겨진다.

15) 『孝經』紀孝行章 第十에 보면, “子曰 孝子之事親也 居則致其敬 養則致其樂 病則致其憂 喪則致其哀 祭則致其嚴 五者 備矣然後 能事親(효자의 어머니 섬김에 함께 있을 때는 공경을 다하고, 봉양함에는 즐거움을 다하고, 병 들면 근심을 다하고, 돌아가시면 애도를 다하고, 제사 때는 엄숙함을 다함이니 다섯 가지를 구비한 연후에야 능히 어머니를 섬길 수가 있다).”라고 하였다. 增註에는 “致極也 樂謂愉色婉容 人子事親之心 自始至終 無一毫之不盡 可謂孝矣(치는 지극함이다. 낙은 즐겁고 아름다운 얼굴색을 말함이다. 사람의 자식이 어머니를 모시는 마음은 처음부터 끝까지 한 터럭 다하지 아니함이 없어야 효도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라 하였다.

농암(龔巖) 이현보(李賢輔)의 「애일당구경첩(愛日堂具慶帖)」 권하에 관한 연구

‘화산양로연시’와 ‘애일당시’에 차운한 사람의 개별문집에만 수록된 경우는 각 2명인데, 같은 사람이 중복되어 청라(靑蘿) 김극성(金克成)과 십청현(十淸軒) 김세필(金世弼)의 시 6편이다.

‘화산양로연시’에 화답한 사람 중 21명 22편과 ‘애일당시’에 차운한 사람 중 22명의 시 37편은 『농암선생문집』과 개별 문집에 수록되지 않고, 『애일당구경첩』에만 실려 있다. 이들 중 중복된 사람을 제외하면 23명의 시 59편인데, 사지당(四止堂) 김연(金縝), 상정(橡亭) 황필(黃瑋), 우계(愚溪) 황한충(黃漢忠), 남호(南湖) 손수(孫洙), 희락당(喜樂堂) 김안로(金安老), 낙서(洛西) 이항(李沆), 지정(止亭) 남곤(南袞), 치청(稚淸), 풍산(豊山) 심사손(沈思遜), 취성후학(鷺城後學) 추계자명수(楸溪子明叟), 대이(大而) 이위(李偉), 눌헌(訥軒) 이사균(李思均), 관포(灌圃) 어득강(魚得江), 옥봉야노(玉峰野老), 축옹(蓄翁) 황효헌(黃孝獻), 함중(咸從) 어영준(魚泳濬), 죽계(竹溪) 문관(文瓘), 옥하탄(玉下灘) 유중익(兪仲翼), 용재(慵齋) 윤은필(尹殷弼)(?), 영천(靈川) 유환(兪瑗), 김세경(金世卿), 청천(菁川) 유희령(柳希齡), 유정(柳亭) 장옥(張玉)이다. 이들 그룹과 화답시는 새롭게 조명되어야 한다.

셋째, 『애일당구경첩』은 필사본 원본으로 본문은 모두 82쪽이다. 31쪽이 결장인데, 적암(適庵) 조신(曹伸)의 애일당 차운시의 일부가 빠져 있다. 책 표지는 변색이 많이 되었고, 앞 표지에는 제침을 붙였는데, 제침지는 낡았으며 그 위에 남아 있는 표제는 ‘愛日堂具慶帖’이다. 본문은 두꺼운 본바탕의 종이 위에 각각의 필적이 있는 얇은 한지를 붙여 첩장으로 만든 것이다. 이 필사본에 실린 내용이 후대에 편집된 『농암선생문집』이나 일부 화답한 사람의 개인문집에 실린 경우를 비교해 보면 각 텍스트간의 일부 차이가 있어 문헌의 상관관계를 밝히는 데 있어서도 매우 중요한 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 또한 『애일당구경첩』에만 실린 자료들은 후대의 발굴자료와의 관련성을 밝히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하다.

5. 결 론

위에서 살펴본 바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다.

1) 농암(龔巖) 이현보(李賢輔)는 세조 13년(1467) 예안(禮安) 분천리(汾川里)에서 태어나 명종 10년(1555) 89세로 운명하였다. 본관은 영천(永川), 자는 비중(裴仲), 호는 농암(龔巖) 또는 설빈옹(雪鬢翁), 시호는 효절(孝節)이다. 연산군 4년(1498)에 문과에 급제하여 권지교서관부정자(權知校書館副正字)에 보임된 뒤 연산군조와 중종조에 활동하였다. 그는 경관직과 외관직을 두루 거쳤으나 외관직의 보임이 길었는데 그 이유는 그에게는 출세보다 부모에 대한 효도가 더 중요했기 때문이다. 그의 시호가 효절(孝節)인데, 조선을 통틀어 ‘효절’이란 시호를 받은 사람은 농암이 유일하다. 그가 부모의 봉양을 위해 중종 12년(1517) 안동(安東)부사, 중종 17년(1522) 10월 성주(星州)목사, 중종 24년(1528) 영천(榮川)군수, 중종 29년(1533) 경주(慶州)부윤을 제수 받았다. 농암은 스승이 홍귀달(洪貴達)이고, 사림과의 인물들과 가까웠다. 그중 회재(晦齋) 이언적(李彦迪), 모재(慕齋) 김안국(金安國)과 가까웠고, 연하의 인물로는 동향(同鄉)인 퇴계 이황과 가장 가까이 지내면서 많은 서찰과 시들을 주고 받았다. 주세붕(周世鵬)과 황준량(黃俊良)은 지척에서 이현보를 모셨다. 농암의 작품은 현종 6년(1665)에 간행된 『농암선생문집(龔巖先生文集)』 6권 2책 초간본과 광무 2년(1898)의 속집(續集)과 연보(年譜)가 남아 있고, 시가로는 ‘귀전록(歸田錄) 삼장(三章)과 ‘어부장 단가(漁父長短歌)’가 있다. 그의 시가는 자연시이고, 영남가단(嶺南歌壇)을 형성하게 하였으며, 조선 초기 시가에서 조선 중기 시가로 발전하는 교량역할을 했다고 평가되었다.

2) 『애일당구경첩(愛日堂具慶帖)』 권하는 이현보의 ‘화산양로연시(花山養老宴詩)’와 ‘애일당시(愛日堂詩)’를 앞에 두고 당시 경향의 명사들이 운을 맞추어 화답한 시들이 인물별로 실려 있다.

첫째, 이현보는 중종 14년(1519) 중양절(重陽節: 음력 9월 9일)에 안동부사로 있으면서 관할지역 내에 80세 이상 노인들을 관아로 초청하여 성대한 양로연(養

농암(龔巖) 이현보(李賢輔)의 「애일당구경첩(愛日堂具慶帖)」 권하에 관한 연구

老宴)을 베풀었다. 이 자리에는 이현보의 부모뿐 아니라 사족(士族)과 천민(賤民)의 부모까지 참석하게 하여 천(天), 연(年), 변(邊), 연(連), 연(筵)의 운을 써서 ‘화산양로연시’를 지어서 일부 참석자들에게 차운하도록 하고, 그 날의 연회장면인 ‘화산양로연도(花山養老燕圖)’를 그리도록 하였다. 이 시에 화답한 사람은 37명이다. 이중 「농암선생문집」에 재 수록된 사람은 14명의 시 14편이다. 이들 중 놀재 박상, 안분당 이희보, 월연 이태의 시는 「애일당구경첩」과 「농암선생문집」의 텍스트 간에 차이가 있었다. 화답시가 화답한 사람의 개별문집에만 수록된 경우는 청라(靑蘿) 김극성(金克成)과 십청헌(十淸軒) 김세필(金世弼)의 시 2편이었다. 개별문집에 실린 시편에는 시의 제목, 시작 동기가 삽입되고, 시구의 자구도 일부 정정되어 있었다. 나머지 21명의 시 22편은 「농암선생문집」과 개별 문집에 수록되지 않고, 「애일당구경첩」에만 실려 있어 매우 중요한 자료에 해당한다. 위의 ‘화산양로연시’의 화답시 중 중종 17년(1522)의 연도가 있는 것은 추계자명수(楸溪子明叟), 남호(南湖) 손수(孫洙), 희락당(喜樂堂) 김안로(金安老), 곤암(困菴) 소세양(蘇世良), 모재(慕齋) 김안국(金安國), 눌헌(訥軒) 이사균(李思均), 관포(灌圃) 어득강(魚得江), 치호(稚湖), 죽계(竹溪) 문관(文瓘)의 8명이고, 중종 18년(1523)의 연도가 나타나는 것은 축옹(蓄翁) 황효헌(黃孝獻)과 호음(湖陰) 정사룡(鄭士龍)의 시이다. 그중 황효헌(黃孝獻)의 글 앞에는 ‘화산양로연시’에 화답하게 된 동기가 자세하게 들어 있다.

둘째, 이현보는 중종 7년(1512)에 고향집 옆 분강(汾江) 기슭 농암 바위 위에 애일당(愛日堂)을 건립하고 부모에 대한 효도를 위해 명절마다 이곳에서 때때옷을 입고 부모를 즐겁게 해드렸다. 농암은 애일당시(愛日堂詩)에 향(鄉), 장(長), 당(堂)의 운을 써서 시를 지었는데, 이에 화답한 사람은 35명이다. 이들은 「화산양로연시」에 화답한 37명 중 낙서(洛西) 이항(李沆), 축옹(蓄翁) 황효헌(黃孝獻), 치호(稚湖)의 3인이 제외되고, 눌암(訥庵) 홍언국(洪彦國)이 새로 추가되었다. 이중 「농암선생문집」에 재 수록된 것은 11명의 시 27편이다. 「애일당구경첩」과 「농암선생문집」에 실린 내용에 차이가 있는 경우는 삼당(三堂) 김영(金瑛), 놀재(訥齋) 박상(朴祥), 안분당(安分堂) 이희보(李希輔), 적암(適庵) 조신

(曹伸), 월연(月淵) 이태(李迨)이다. 화답한 시가 화답한 사람의 개별문집에만 수록된 경우는 청라(靑蘿) 김극성(金克成)과 십청헌(十淸軒) 김세필(金世弼)의 시 4편이다. 개별문집에 실린 시에는 시의 제목, 주석이 삽입되고, 시구의 자구도 일부 정정되어 있었다. 나머지 22명의 시 37편은 『농암선생문집』과 개별 문집에 수록되지 않고 『애일당구경첩』에만 실려 있어 매우 중요한 자료에 해당한다. ‘애일당시’의 화답시 중 연도가 나타나는 것 중 중종 17년(1522)의 연도가 있는 것은 남호(南湖) 손수(孫洙)를 비롯하여 7명이고, 중종 18년(1523)의 연도가 나타나는 것은 호음(湖陰) 정사룡(鄭士龍)이며, 중종 20년(1525)의 연도가 보이는 것은 금현(琴軒) 이장근(李長坤)이다. ‘화산양로연시’와 ‘애일당시’의 화답시의 연도 중 가장 빈도수가 많은 것은 중종 17년(1522)이고, 다음은 중종 18년(1523)이며, 중종 20년(1525)이 가장 늦다. 이로 보아 위에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이 책의 편집은 중종 14년(1519)부터 중종 20년(1525) 사이에 이루어진 것으로 여겨진다.

3) 『애일당구경첩』의 가치는 첫째, 『애일당구경첩』 권하는 보물 1202호이다. 이 책을 통해 조선시대 목민관의 양로잔치와 효의 풍속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 수 있다. 농암 이현보의 ‘화산양로연시’와 그에 화답한 사람들의 시와 ‘화산양로연도’를 통해 당시의 행사 내용을 구체적으로 알 수 있다. 이는 조선 풍속의 하나인 양로행사를 통하여 나타난 효행과 성종-명종시기에 농암과 교류했던 사람들의 효의 풍속을 이해할 수 있는 중요한 증거기록에 해당한다. 둘째, 『애일당구경첩』에는 성종-중종 시기 사람파로 활동했던 인물들이 집중되어 있어 농암이 교류했던 중요 인물들과 그들의 문학성을 살펴 볼 수 있다. 농암의 ‘화산양로연시’에 차운한 사람이 37명, 애일당시에 차운한 사람이 35명인데, 두 시에 중복된 사람이 많아서 실제로는 38명이 106편을 차운하였다. 이들의 시 중에서 ‘화산양로연시’에 차운한 14명 14편과 ‘애일당시’에 화답한 사람 11명 27편은 『농암선생문집』에 채 수록되었는데, 이중 중복을 제외하면 16명의 시 41편이다. 이들이 이현보와 가장 가까운 사람들로 여겨진다. ‘화산양로연시’와 ‘애일당시’에 차운한 사람의 개별문집에만 수록된 경우는 각 2명인데, 같은 사람이 중복되어 청라(靑蘿) 김극성(金克成)과 십청헌(十淸軒) 김세필(金世弼)의 시 6편이다. ‘화산양로연시’에 화답한

농암(龔巖) 이현보(李賢輔)의 「애일당구경첩(愛日堂具慶帖)」 권하에 관한 연구

사람 중 21명 22편과 ‘애일당시’에 차운한 사람 중 22명 37편은 『농암선생문집』과 개별 문집에 수록되지 않고, 『애일당구경첩』에만 실려 있다. 이들 중 중복된 사람을 제외하면 23명의 시 59편인데, 이들 그룹과 화답시는 새롭게 조명되어야 한다.

셋째, 『애일당구경첩』은 필사본 원본으로 본문은 모두 모두 82쪽인데, 그중 31쪽이 결장이다. 이 필사본에 실린 내용이 후대에 편집된 『농암선생문집』이나 일부 화답한 사람의 개인문집에 실린 경우를 비교해 보면 각 텍스트간의 일부 차이가 있어 문헌의 상관관계를 밝히는 데 있어서도 매우 중요한 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 또한 『애일당구경첩』에만 실린 자료들은 후대의 발굴자료와의 관련성을 밝히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하다.

<참고문헌>

- 국립중앙박물관 편. 『때때웃의 선비 농암 이현보』. 서울: 시월, 2007.
- 金東俊. 『李賢輔論』. 安東文化研究所 編. 『龔巖 李賢輔의 文學과 思想』. 安東大學校, 1992.
- 李秉然. 『16世紀 前半期の 政局과 龔巖 李賢輔』. 安東文化研究所 編. 『龔巖 李賢輔의 文學과 思想』. 安東大學校, 1992.
- 李性源. 『龔巖과 退溪의 文學의 交遊樣相』. 安東文化研究所 編. 『龔巖 李賢輔의 文學과 思想』. 安東大學校, 1992.
- 전관수. 『한시어사전』. 서울: 국학자료원, 2002.
- 한국국학진흥원 국학자료부. 『귀중본자료집』. 안동: 한국국학진흥원, 2003.

